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

통일을 대비한 소설 교육 방안 연구



2007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조성배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통일을 대비한 소셜 교육 방안 연구

지도교수 송명희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조성배

*A Study on the Method of
Teaching Novels Preparing for
the Unification of Korea*

(통일을 대비한 소설 교육 방안
연구)

Advisor : Prof. Myeong Hee Song

by
Sung Bae Ch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ugust 2008

조성배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인준함

2007년 8월 31일



주 심 문학박사 남 송 우 인

위 원 문학박사 송 명 희 인

위 원 문학박사 김 남 석 인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	8
3. 연구의 방법	11
II. 남한과 북한의 문학 교육	12
1. 남한의 문학 교육	12
2. 북한의 문학 교육	29
3. 남한과 북한의 문학 교육 비교	55
III. 통일을 대비한 소설 교육 방안	58
1. 통일을 대비한 소설 교육 과정	58
1) 교육 목표	60
2) 교육 내용	61
3) 통일 대비 소설 교육을 위한 소설 목록	63
2. 통일을 대비한 소설 수업 지도 방안	77
(윤홍길의 「장마」를 중심으로)	
IV. 결론 및 제언	88
참고 문헌	93

표 목 차

<표 1>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수록 문학 관련 단원명 및 내용	17
<표 2> 『문학』 과목의 내용 체계와 영역별 내용	20
<표 3> 『국어』 과목의 문학 영역 체계	21
<표 4> 『문학』, 『국어』 교과서 수록 작품과 작가	23
<표 5>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수록 소설	28
<표 6> 북한의 고등중학교 문예 이론	42
<표 7> 북한 문학 교육의 문학사적 흐름과 작가, 작품	47
<표 8>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의 불멸의 친필활동’ 단원 내용	53
<표 9>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수록 소설	58
<표 10>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수록 소설	59
<표 11> 통일을 대비한 소설 교육 과정의 내용 체계	61
<표 12> 통일을 대비한 소설 교육 과정의 활동 요소	61
<표 13> 통일을 대비한 소설 교과서의 단원 제목과 수록 작품	65
<표 14> 윤희길의 「장마」 차시별 수업 지도 계획	78

A Study on the Method of Teaching Novels Preparing for the Unification of
Korea

Sung Bae Cho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Since South-North Korean summit talk in 2000, there has been a friendly mood in the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 But, the education for the unification is still hard to find in the school.

The topic of the unification is sometimes dealt with in the ethics and the moral class. However, the topic is hardly dealt with in the literary class because of the limit of Korean educational system preparing for the entrance ex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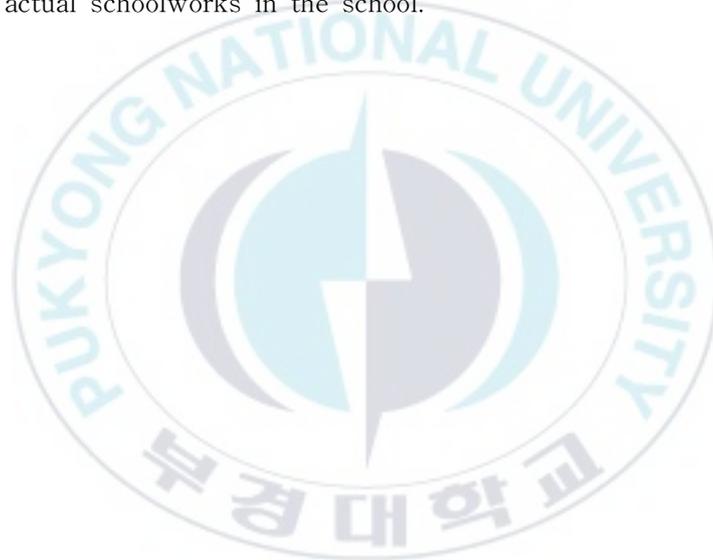
Therefore,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teaching method preparing for the unification of Korea through the novel education.

A novel is the branch of literature that shows the whole aspects of the lives of the characters conflicting in the specific social background. The novel enlarges the readers' experience and recognition and widens the understanding about the human being and the society.

For the novel education preparing for the unification of Korea, the realities of literary education, such as the theories of literature and the literary textbooks in South and North Korea,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en, the curriculum for the novel education preparing for the unification was designed. Finally, the novel textbook preparing for the unification based on this curriculum was proposed. This novel textbook lists some novels written by North Korean writers. It also lists 「Yim Ggeok Jeong」, by Myeong-hee Hong, 「Gap-o Farmers' War」, by Tae-won Park, who both went to North Korea, 「Hong Gil-Dong」, 「Heo Saeng」, which are classical novels, 「A Living Tomb」, and 「Gwang Jang」, which are current novels. Considering the internal and external background of those novels, students can sufficiently discuss the reasons for the division of Korea, the realities of the division, and the solutions to the division.

And the methods of teaching novels preparing for the unification were designed. These methods can be applied in the actual literary class with 『A rainy season』 by Heug-gil Yoon. Also, some activities were presented; confirming and surmounting the differences of langua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mind-mapping to understand the historical and social background before the division, discussing the solutions to the division, writing letters to the writers, and drawing up a South-North adolescents joint declaration.

However, this research still needs more study about the realities of the literary education in North Korea, more objective and systematic investigation about the novels which will be included in the novel textbook, and enough actual schoolworks in the school.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50년 한국 전쟁 이후 냉전 체제가 오랫동안 감돌고 있었던 한반도에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는다. 우리 나라의 국시(國是)가 ‘반공’이었던 과거의 냉전 시대에는 ‘통일’이라든지 ‘평화’라는 말이 발붙일 틈이 없었다.

하지만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무르익고 있는 화해와 평화의 시대에는 ‘통일’과 ‘평화’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 문학인들의 교류, 이산가족 상봉, 경제 교류 등에서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정치권에서의 국가보안법 문제는 물론이고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도 다양한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드러나는 것을 볼 때, 정치, 사회, 문화 어느 면에서도 실질적인 통일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통일 교육은 대부분 도덕 교과와 윤리 교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통일 교육이 안보 교육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 지극히 이론적이고 당위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일 교육은 감동이 없으며, 뼈아픈 통한의 감정도 없고, 그저 무미건조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더구나 안보 교육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 교육은 한쪽에는 칼을 들고 있으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악수를 청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¹⁾

국어 교육, 특히 문학 교육도 마찬가지로 상황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상황이 조금 나을지도 모르겠지만 고등학교의 국어 시간이나 문학 시간에 통일을 이야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는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이라든가 통일을 중심에 두고 있지 않은 교과서와 교육 과정, 그리고 교사 스스로의 관심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할 것이다.

이런 상황은 학생들이 지금까지 학교에서 문학 시간에 통일과 관련된 수업을 얼마나 받았으며²⁾ 어떤 작품을 읽었는지를 알아보는 다음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이 설문 조사³⁾는 남자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생 153명을 대상으로 2006년 12월에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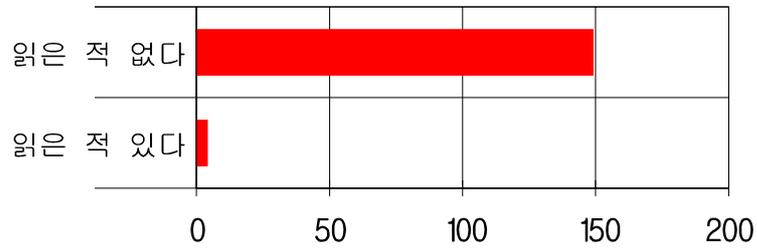
1.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북한 문학 작품을 읽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153명 중 단 4명만이 읽은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나머지는 모두 읽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읽은 사람들도 수업 시간에 읽었던 월북 시인들의 시, 홍명희의 『엄격정』⁴⁾, 그리고 제목이 기억 안 나는 소설 1편과 희곡 1편이었다. 얼마나 우리 고등학생들이 북한 문학을 접할 기회가 없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1) 백병부, 「국어 시간에 하는 분단과 통일 이야기」, 『함께하는 국어 교육』 여름호, 전국국어교사모임, 2003, 6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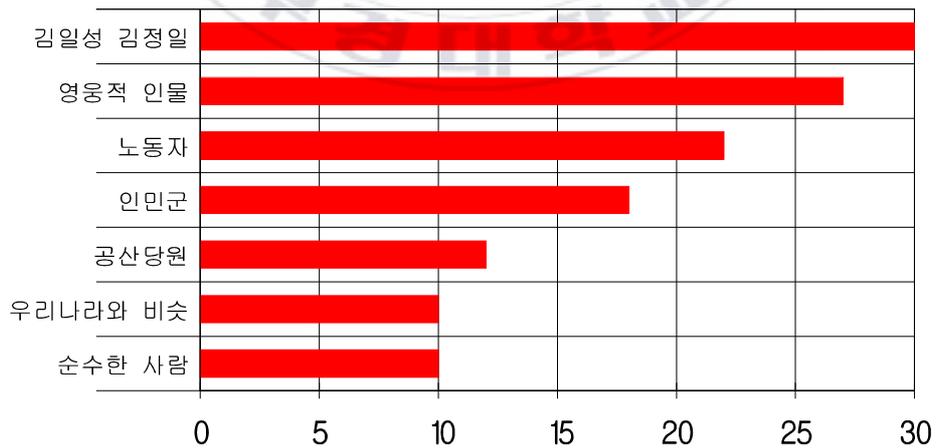
2) 이 논문의 ‘II. 남한과 북한의 문학 교육’ 중 ‘1. 남한의 문학 교육’ 부분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작품과 수업 내용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지금의 문학 교육은 통일 교육과는 거리가 먼 내용들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설문지 내용은 참고 자료 1 참고.

4) 1928년부터 1939년까지 ‘조선일보’에 연재된 홍명희의 소설로, 엄격한 의미에서는 북한 문학으로 분류되기가 곤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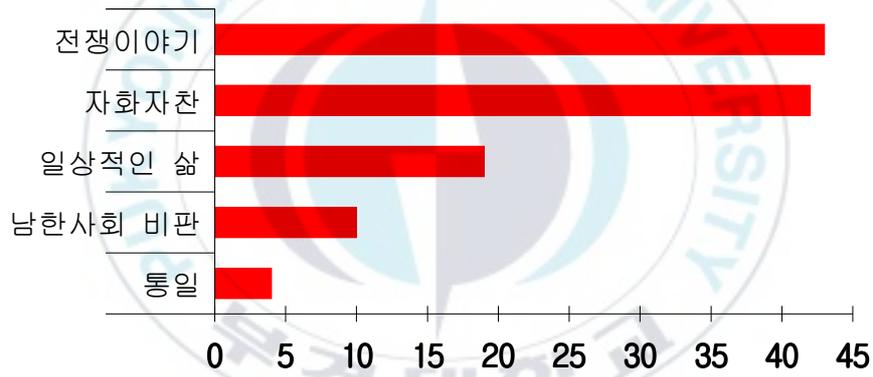


2. 북한 소설에는 어떤 주인공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로 총 30명이 답변하였으며 영웅적 인물이 27명, 노동자가 22명, 인민군이 18명, 공산당원이 12명, 우리 나라와 비슷하다는 답변이 10명, 그리고 순수한 사람이라고 답변한 사람도 10명 있었다. 그 외에도 독립투사, 이쁜 여자, 멋진 남자라는 답변과 더불어 빨갱이라는 답변도 4명 있었다. 이런 결과는 아직까지도 학교 교육에서 냉전적인 요소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으며 통일 교육이 뿌리내리고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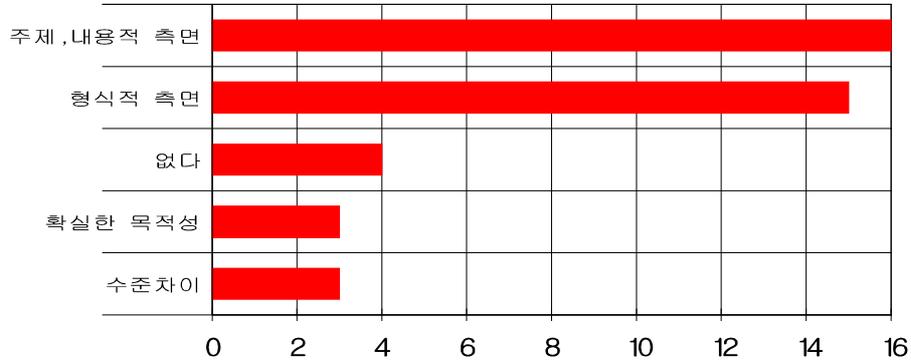


3. 북한 소설에는 주로 어떤 사건들이 나올까라는 질문에도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43명이 답한 전쟁이야기였으며 김일성, 김정일과 북한 사회에 대한 자화자찬의 내용이 42명이었다. 그리고 남한 사회 비판, 통일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으며 핵문제, 탈북자 등의 답변도 있었다. 이는 지금도 북한을 바라보는 눈이 객관화되지 못하고 다양화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일상적인 북한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답한 사람이 19명이나 되었는데, 이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통일 지향 교육에 대한 희망을 보여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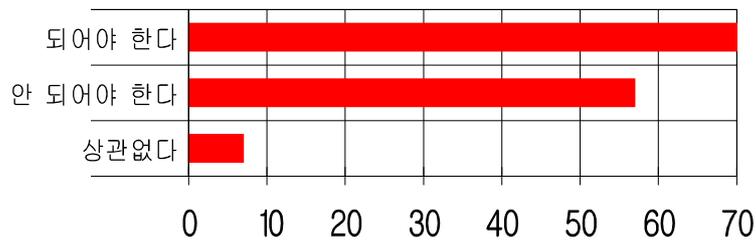


4. 북한 소설과 우리 나라 소설과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체제 찬양, 사상 이념 문제, 남한 사회 비판이라는 주제·내용적인 측면과, 표현법이라든지 맞춤법과 같은 형식적인 측면이 많이 다를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 밖에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도 있었으며 수준차이, 확실한 목적성 등의 소수 답변도 있었다.



5. 통일은 반드시 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70명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57명이 안 되어도 된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아무런 상관없다라고 답한 학생도 7명이었다. 통일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답한 학생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하고 민족 화합과 경제적 이득을 통해 강대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런 답변은 학생들이 그래도 심정적으로나마 통일을 원하고 있으며 조금만 효과적인 통일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교육적 효과가 생길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설문조사 결과, 많은 학생들이 평소에 북한 문학 작품, 특히 소설 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아주 힘든 사실로 드러났다. 심지어 우리 주변,

즉 서점이나 대학교의 도서관에서 북한 소설을 쉽게 구해서 읽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면 놀랍다는 듯이 바라볼 뿐이었다.

많은 학생들이 직접 북한 소설을 읽지 못했기에 소설의 내용이나 주제도 김일성 부자에 대한 찬양이나 체제 찬양, 남한 사회 비판과 같은 내용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아직까지 문학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 교육 자체가 객관적인 북한 문학 자료의 개방은 물론이고 온전한 통일 지향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일부의 학생이지만 북한 소설의 내용이 우리 나라의 소설과 같이 일상적인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한 것이나 많은 학생들이 통일이 그래도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답한 것을 볼 때, 우리 나라의 교육, 특히 문학 교육이 담당해야 할 통일 교육의 역할을 충분히 느끼게 하는 부분이었다.

문학 교육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문학은 ‘가치있는 체험의 기록인 동시에 근본적으로 언어라는 매체를 통한 인생의 표현’⁵⁾이라고 볼 때, 문학 교육의 목표는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주체적 인격으로 성숙시키며 문학 능력을 기른다’⁶⁾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소설은 인물과 인물이 특정한 사회적 배경 안에서 갈등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갈래이다. 따라서 삶을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갈래라면 소설이 가장 제격이다. 소설 속 인물이 갈등하고 선택하는 과정들은 그대로 우리 삶과 결부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인물들의 행동을 비판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독자에게 간접 체험의 기회를 통해 체험의 폭을 확대시킬 것이며, 나아가 실제 경험할 수 없는 허구적 상황으로까지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⁷⁾

5) 최재서, 『문학원론』, 춘조사, 1963, 11면.

6) 고용우, 『소설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함께하는 국어 교육』 여름호, 전국국어교사 모임, 2004, 32면.

또한 소설은 그 형식의 부드러움으로 인해 먼저 감성에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전하면서 동시에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소설 형식의 접근법은 남북한의 언어 차이에 대한 지식이 단지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학생들에게 느끼게 해⁸⁾ 줄 것이다.

그러기에 필자는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통일 조국의 모습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게 하는 재료로 소설이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그래서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연구의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남한과 북한의 문학 교육의 성격과 특성, 교과서 내용 및 교육 현실을 알아보고,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확인한 후 남과 북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둘째, 남한의 교육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통일을 대비한 소설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문학 교과서에 실려 학생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통일 교육 관련 소설 작품을 선정해 보고자 한다.

셋째, 구체적인 소설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수업 지도 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통일을 대비한 소설 교육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7) 고용우, 앞의 글, 33면.

8) 심영택, 「통일 대비 국어 교육 연구」, 『청주교육대학교논문집』, 2000, 18면.

2. 선행 연구 검토

국어과가 아닌 다른 과목에서의 통일을 대비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져왔다.⁹⁾

그리고 국어과와 관련해서는 박상미¹⁰⁾가 말하기·듣기 교육에서 통일에 대비한 교육 내용을 연구하였다. 그는 특히 우리 나라와 북한의 말하기·듣기 교육의 개념과 목표, 내용을 비교하면서 중학교 3학년 국어과 과정을

-
- 9) 김효정,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중등 수학교과서의 비교」, 창원대학교교육대학원, 2006.
지성근, 「통일에 대비한 학교 통일 교육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교육대학원, 2001.
김은경, 「평화통일에 대비한 학교 통일 교육의 개선방향-고등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교육대학원, 1999.
한희정, 「통일대비 음악교육을 위한 북한음악의 이해」, 숙명여대교육대학원, 2003.
강남정, 「통일에 대비한 학교교육의 방안 모색-초등교육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교육대학원, 1993.
송현우, 「통일에 대비한 교육제도의 발전방향」,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1997.
서현진, 「남북한 음악교과서의 통합방안 연구」, 부산대학교교육대학원, 2005.
차생수,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교육에 관한 연구 - 초등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교육대학원, 1998.
이민형, 「초등도덕과 통일 교육의 개선방향」, 대구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 2002.
노인숙, 「초등학교 열린 통일 교육방안」, 부산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 2000.
김기선, 「남북한 국민(인민)학교 체육교육의 비교분석 및 통일을 대비한 체육교육의 통합 방안」, 숭실대학교 통일정책대학원, 1995.
홍정숙, 「남북한 유아교육 통합 정책 방향 고찰」, 성균관대학교교육대학원, 1997.
지향구,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도덕교육의 비교연구」, 한국교원대학교교육대학원, 1997.
홍석재, 「남북통일에 대비한 경제교육 연구」, 충북대학교교육대학원, 1999.
최상선, 「통일을 대비한 초등학교의 평화교육 방안 연구」, 충북대학교교육대학원, 2004.
전성희, 「통일사회를 대비한 북한 사회과 교과서 내용 연구」, 이화여자대학교교육대학원, 2001.
이복기, 「통일 대비 교과교육 통합에 대한 연구」, 진주교육대학교대학원, 2002.
조정기, 「중등사회과의 통일 교육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교육대학원, 2002.
신혜진, 「통일 한국의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과 통일 교육」, 이화여자대학교교육대학원, 2002.
홍명옥, 「남북한의 초등 교육제도와 교육 과정 비교 연구」, 인천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 2000.
김옥자, 「중학교 통일 교육의 방향과 교수학습 방법」, 공주대학교교육대학원, 2003.
- 10) 박상미,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말하기·듣기 교육 내용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교육대학원, 2006.

중심으로 통일 대비 말하기·듣기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였다.

북한호¹¹⁾는 남과 북의 문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과서의 이질성을 비교하면서 통일을 대비한 교육의 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장휘¹²⁾는 연암 박지원의 작품들이 남과 북에서 어떻게 각각 평가받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통일 교육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성은주¹³⁾와 이인제¹⁴⁾, 문선희¹⁵⁾는 북한의 국어 교과서와 국어과 교육 과정을 연구하였으며 윤계월¹⁶⁾과 윤희원¹⁷⁾은 북한의 국어과 교육 과정과 교육정책 전반에 걸친 변천과정을 연구하였다. 특히 이인제는 남한 초등학교와 북한 인민학교의 국어 교육 성격과 특징, 교육 목표 및 교육 내용과 체계를 소개하고 있다. 또 그는 현 시점에서 북한이 실천하고 있는 국어과 교육의 실상을 바르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북한의 과정안, 교수요강, 국어 교과서, 국어과 교육 관련 이론서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정숙¹⁸⁾은 국어 교육의 이념과 방향에서 본 남북한의 국어 교육관 및 국어 교육의 내용과 방법, 남북한 언어 이질화와 국어 교육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통일을 대비한 국어 교육의 구체적인 지도와 관련한 보다 여러 가지 제언 및 지침을 제시하고자 했다.

채지영¹⁹⁾은 북한의 교과서 분석과 동시에 북한 소설 『쇠찌르레기』(림중

11) 북한호, 「남·북한 교과서 이질성 비교-고등학교 문학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교육대학원, 2006.

12) 이장휘, 「북한의 문학 교육 연구-고등중학교 『국어문학』과 연암 작품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교육대학원, 2002.

13) 성은주, 「북한 국어 교과서 분석 연구 -『고등중학교 국어1·2·3』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교육대학원, 1994.

14) 이인제, 「북한의 국어과 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박사논문, 1996.

15) 문선희, 「북한의 고등중학교 문학 교육」, 이화여자대학교교육대학원, 1999.

16) 윤계월, 「북한 교육 과정 변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논문, 1989.

17) 윤희원, 「북한의 국어 교육에 관한 고찰」, 『주시경 연구 제 4집』, 1989.

18) 이정숙,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국어 교육 방안 연구」, 서울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 2003.

19) 채지영, 「남북한 현대 소설 교육의 비교 및 전망」, 이화여자대학교교육대학원, 1998.

상)와 「벗」(백남룡)을 소개하고 북한과 남한의 문예이론에 따라 분석하면서 분단과 통일, 화해라는 남과 북의 공통 소재를 중심으로 한 ‘공통 문학’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한상수²⁰⁾는 북한 현대시의 전개 양상을 기원에서부터 사회주의 건설의 시기, 주체시대의 시기, 그리고 1990년대 이후 현대시의 새로운 경향으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남북한 현대시사의 통합 서술 가능성을 살폈다.

한정선²¹⁾은 남한의 중학교 교과 중 『국어』와 『생활국어』 과목을 중심으로 남북한 국어과 교육 과정을 비교하면서 통일에 대비하여 듣기, 말하기 영역과 읽기, 쓰기 영역에서 국어 교육의 모형을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통일을 대비하여 많은 연구가 국어 과목에서는 물론이고 다른 과목에서도 진행되어 왔지만 정작 소설을 고민의 중심에 놓고 연구한 것은 심영택의 연구가 유일하다.

심영택²²⁾은 통일 대비 국어과 교육의 방향과 성격 및 내용 체계를 살펴면서 직접 통일 대비 국어 교과서의 한 단원을 만들어 보이고 있다. 즉, ‘겨레도 하나 언어도 하나’라는 장편(掌篇) 소설을 자료글로 삼아 이에 따른 ‘단원의 길잡이’, ‘학습목표’와 ‘준비학습’, ‘학습활동’, 그리고 ‘학습활동 도움말’까지 자세하게 통일 대비 국어 교과서가 가져야 할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심영택의 연구는 통일 대비 국어과 교육에서 선도적이고 창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스스로 창작한 장편(掌篇) 소설을 통한 남북한 언어의 이질성 극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계가 있다. 이에 다양하고 실질적인 방법을 통해 통일을 대비하는 소설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된다.

20) 한상수, 「북한문학 연구의 비판적 검토와 전망」, 고려대학교교육대학원, 2003.

21) 한정선, 「통일에 대비한 국어과 내용 선정 방안 연구」, 홍익대학교교육대학원, 2004.

22) 심영택, 「통일 대비 국어 교육 연구」, 『청주교육대학교논문집』, 2000.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구체적인 교육 현장에서 소설 작품을 통해서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통일을 대비한 소설 수업 방법을 마련해 보기 위해 먼저 남한과 북한의 문학 교육을 살펴보고자 한다.

남한의 문학 교육은 7차 교육 과정상의 『문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문학 교육 이론과 교과서에 실려 있는 소설 작품들을 살펴보고, 북한의 문학 교육은 『국어문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문예이론과 교과서에 실려 있는 소설 작품들을 살펴봄, 둘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특히, 7차 교육 과정상의 『문학』 교과서를 살펴보면, 교육 목표와 그에 따른 읽기 자료로 제시된 소설들을 따져 보고 이 소설들이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된다면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그 결과 현재의 문학 교육이 통일을 대비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확인하여 이로부터 통일을 대비한 소설 교육의 단초를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통일을 대비한 소설 교육의 목표와 교육 내용을 마련하여 통일 대비 소설 교육 과정을 만들고, 소설 교육을 통해 통일을 대비하기에 적합한 소설 작품 목록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이 소설 작품 목록 선정은 남북한의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들과 현재 교과서에는 실려 있지 않지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소설을 중심으로 하여 남과 북의 학생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작품을 중심으로 선정할 것이다.

그리고 윤홍길의 단편 소설 「장마」를 자료 작품으로 하여 현재 고등학교의 문학 수업 현실을 바탕으로 실천 가능한 다양한 수업 방법들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통일 대비 소설 수업 지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II. 남한과 북한의 문학 교육

1. 남한의 문학 교육

1) 성격과 특성

문학 교육은 단순히 ‘문학+교육’이라는 평면적 결합이 아니라 ‘문학’이라는 내용 변인과 ‘교육’이라는 방법 변인의 내적·질적 특성에 따라 단순한 ‘문학+교육’의 수준을 넘어서는 문학 교육 자체의 의미를 발생시킨다. 이는 문학 교육이 문학과 교육이 평면적으로 결합한 상태에서 한 단계 상승된 유기화된 개념임을 의미한다.²³⁾

즉, 문학 교육에 대한 논의는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서의 문학, 일체의 의도된 과정과 결과인 교육, 그리고 이 두 가지 항목의 결과적 사항으로서 문학 교육 자체의 속성을 밝혀내는 것에 집중되어 왔다.

그 결과, 내용으로서의 문학은 생산, 구조, 수용, 반영 등의 네 가지 측면으로 구조화하여 파악되었다. 즉, 작품 생산의 측면은 작가론적 이해를 중심으로 시대나 환경 등 작품 생산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을 포괄하고, 작품 구조의 측면은 문학적인 장치를 이해하여 문학과 비문학과의 차이와 각각의 고유한 인식채널로서의 특성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작품 수용의 측면은 감상 및 내면화의 발달을 통해 문학적 문화의 맥락 속에 자신을 투여해서 반응적 힘을 얻는 영역이며, 작품 반영의 측면은 삶의 총체적인 이해를 기하면서 환경과 사회, 역사에 반응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다.²⁴⁾

23) 구인환 등, 『문학교육론』, 삼지원, 1988, 35면.

24) 구인환 등, 위의 책, 37면.

일체의 의도된 과정과 결과로서의 교육은 교육의 정의로서 두루 인정되고 있는 ‘교육이란 인간 행동의 의도적 변화를 위한 과정 또는 결과’라는 행동과학적 관점을 밑바탕을 두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학습자의 자발적 의도에 의해서 문학적 경험이 이루어지는 상태나 결과도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장한다. 즉, 수용자 자신이 스스로 잠재적 교사로서의 기능까지도 수행할 수 있다는 것까지 나아간다.

이처럼 문학과 교육이 효과적으로 조직되고 문학 교육의 독자적 영역이 구축되어 문학 교육만의 고유하고 ‘바람직한 속성’이 추출된다. 여기서의 ‘바람직한 속성’이란 인간다움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며 그것은 정서적으로는 위안, 심미적 안정감, 진인성 등으로 나타나며 궁극적으로는 가치지향의 문제로 귀결되어 이데올로기 자체의 비판기능까지도 포함하게 된다.²⁵⁾

이상과 같은 이론적 바탕 아래 7차 교육 과정에 제시된 문학 교육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²⁶⁾

첫째, 문학 교육은 국어를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 참신한 발상과 상상력을 신장하고 개성적인 언어 표현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다. 이는 ‘문학 교육’ 보다 큰 ‘국어 교육’의 성격 규정²⁷⁾ 속에도 잘 드러나고 있다.

둘째, 문학 교육은 언어를 통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작품의 미적 가치를 감상하고 이해하며 평가하는 심미적 활동, 즉 문학의 수용과 창작을 통해 심미적 언어 활동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다.

셋째, 문학 교육은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고 방식을 잘 그려낸 작품을 가

25) 구인환 등, 앞의 책, 41면.

26) 김윤식 외, 고등학교 『문학』 교사용 지도서, (주)도서출판 디딤돌, 2002, 8면.

27) ‘한국인의 삶이 배어 있는 국어를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 정보화 사회에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국어 생활을 영위하고, 미래 지향적인 민족 의식과 건전한 국민 정서를 함양하여, 국어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게 하기 위한 교과’.

르치는 것이므로 한국인의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며 민족 문화의 정수(精髓)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러한 문학을 배우는 것은 문화를 계승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위와 같은 성격 규정 하에 남한의 교육은 평생 동안의 문학 문화 실천과 통합 교육으로서의 문학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성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양성 평등 교육, 통일 교육, 민족 문화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환경 교육 등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²⁸⁾

2) 문학 교육의 이론

가) 실체 중심의 문학 교육 이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물로서의 작품을 중심에 두고 작품과 그 관련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문학 교육의 주요한 실천 방향으로 삼는 이론이다. 문학에 대한 지식 교육이라 할 수 있는 이 교육론은 문학 교육의 대상인 문학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갖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만큼 목적, 과정, 방법 등에서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리고 문학에 대한 지식 자체는 학습자가 학문과 실용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든 학습자에게는 유용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의의가 있다. 아울러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주요 작품들을 익숙하게 이해시킴으로써 학습자가 교양인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것도 장점이다. 이 이론은 문학에 대한 학문적 연구 성과를 교육의 내용으로 삼은 것으로, 주로 학문 중심의 교육 과정에 채택된 이론이라 할 수 있다.²⁹⁾

28) 김윤식 외, 앞의 책, 10면.

29) 김윤식 외, 앞의 책, 11면.

나) 속성 중심의 문학 교육 이론

문학 작품을 구성하는 요소와 자질이나 문학을 둘러싸고 있는 맥락 요인들을 이해하는 것을 문학 교육의 주요한 내용과 방법으로 삼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른 시의 율격, 음악성, 소설의 플롯, 인물 성격 등에 대한 이해는 고급한 문학의 이해와 감상을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문학과 세계의 맥락을 주목하여 작품 속에서 특정한 시대의 삶의 가치나 의의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도 수준 높은 문학의 이해와 감상이 된다. 문학을 지식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문학성을 감상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이론은 학습자로 하여금 문학에 대한 수준 높은 감수성이나 안목을 갖게 하는 장점이 있다.³⁰⁾

다) 활동 중심의 문학 교육 이론

학습자의 문학 활동을 중심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이론으로, 문학과 관련한 인간의 모든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이다. 작품의 이해와 감상은 수용 활동으로 볼 수 있는데, 문학적 표현 역시 표현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이 이론은 인간은 누구나 문학을 수용하고 또 창작할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문학 교육은 문학에 대한 지식 교육이 아니라 학습자가 작품을 제대로 수용하고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문학에 대한 지식의 획득, 표현 능력의 신장, 삶과 세계에 대한 통찰 등을 가능케 하는 교육이라고 본다. 이 이론은 학습자 중심의 문학 교육과 창작 교육의 강조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³¹⁾

라) 최근의 동향

최근에는 창작(표현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학습자 중심 문학 교육, 활동 중심 문학 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데, 이는 또한 과정 중

30) 김윤식 외, 앞의 책, 12면.

31) 김윤식 외, 앞의 책, 12면.

심의 문학 교육과 수행 중심의 문학 교육과 상통한다. 지식과 이해의 수준이 어떠한지 그 성취도만 평가하는 결과 중심의 문학 교육에 대한 반성의 성격을 갖고 있는 과정 중심, 수행 중심의 문학 교육은 기본적으로 학습자 중심, 활동 중심의 문학 교육을 전제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창작 교육은 단순히 새로운 교육 내용의 도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학 교육 방법론의 획기적인 변화를 동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문화 지향의 문학 교육론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문학을 문화로 보는 관점에서 나온 것인데, 21세기가 문화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과 무관하지 않다. 문화의 발전은 개개인이 문화 생활을 실천하는 데서 이루어지는데 문학을 일상 생활 속에서 수용하고, 창조하고, 활용하는 활동이 개개인의 삶 속에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민족과 국가 차원의 다양한 문화가 발전하면서 동시에 인류 공동체의 연대 의식도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문화 지향의 문학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영상 매체와 전자 매체가 등장하여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 다매체 시대의 문학 교육의 방향과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도 새로운 동향이다. 여기에는 문학 영역의 확장, 매체 이해, 매체 활용 등이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문학이 이제 말과 글에 국한되지 않고 영상 매체와 전자 매체로 전이되고 확장되고 있으므로 문학 교육의 범위 역시 이러한 변화에 따라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매체에 대한 학습자의 주체성, 비판 능력, 창의적 활용 능력 등의 신장이 주목된다.³²⁾

다음 표는 이상과 같은 문학 교육의 성격과 이론을 바탕으로 제작된 7차 교육 과정상의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문학 관련 단원과 내용이다.

32) 김윤식 외, 앞의 책, 12-13면.

<표 1>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수록 문학 관련 단원명 및 내용

학년	단원명	내용
중 1-1	문학의 즐거움	작품을 읽고 느낀 점을 말이나 글로 표현 문학 작품을 즐겨 읽기
	삶과 갈등	갈등의 해결 과정 파악 갈등의 해결 과정에 따른 인물의 심리 변화 파악 대본 만들어 연극 공연하기
	문학과 의사소통	작가, 작품, 독자의 관계 파악 의사 소통의 관점에서 작품 파악
	문학과 사회	문학 작품과 사회의 관계 파악 작품에 나타난 사회적 상황 이해
중 1-2	문학의 아름다움	문학의 아름다움과 가치 판단 일상 언어와 문학 언어와의 관계 이해
	시의 세계	시어의 특징, 시에 드러난 현실 세계를 이해하며 감상
	문학과 독자	소통 행위로서의 문학의 특성 파악 작품의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상황 이해
중 2-1	감상하며 읽기	문학 작품을 다양하게 감상 자기의 감상을 적극적으로 표현
	우리 고전의 맛과 멋	고전 문학 작품에 나타난 우리 조상들의 사상과 정서 이해 고전 문학 작품의 가치를 알고, 즐겨 읽는 태도 기르기
	삶과 문학	삶을 바탕으로 창조된 문학 작품의 이해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며 작품을 감상
	작품 속의 말하는 이	작품 속에서 말하는 이를 찾기 말하는 이를 고려하면서 작품 감상

학년	단원명	내용
중 2-2	작가와 작품	작가의 삶이 작품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반영 작품 속에 반영된 작가의 생각 파악
	문학의 표현	글쓰기가 사용한 다양한 표현 방법 이해 표현의 특징에 유의하며 문학 작품 감상
	창작의 즐거움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 즐거움 맛보기 문학 작품을 즐겨 읽고, 창작하는 태도 기르기
중 3-1	시의 표현	시에 쓰인 여러 가지 표현 방법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며 시 감상
	독서와 사회	작품에 나타난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창작 동기와 관련 짓기
	한국 현대 문학의 이해	한국 현대 문학의 역사적 전개 과정 이해 한국 현대 문학에 대한 관심과 애정
중 3-2	창조적인 문학 체험	자신의 경험을 통한 문학 작품의 수용 작품의 창조적 수용의 중요성 인식
	작가의 개성	작가의 개성 파악
	고전 문학의 감상	한국 문학의 개념과 특징 파악 고전 문학 작품을 읽고 자신의 생각 표현
	글과 표현	글에 나타난 표현 방법을 찾고 특징 파악 다양한 표현 방법이 주는 효과 이해
고 (상)	문학의 즐거움	사실을 아는 즐거움, 상상의 즐거움, 나를 깨닫는 즐거움
	문학의 유형	노래의 문학, 이야기의 문학, 보여주는 문학
	작가, 작품, 독자	작자의 창작 동기, 작가와 작품의 관계, 작자와 독자의 관계
	문학과 현실	삶의 조건으로서의 현실, 역사적 상황으로서의 현실, 현실의 인식
고 (하)	언어와 문학	언어의 다의성, 문학 언어의 형상성, 문학 언어의 심리 적 효과
	문학과 문화	생활문화로서의 문학, 예술문화로서의 문학, 문화의 계승과 창조

3) 남한의 문학 교육 실태

『문학』 과목은 국어 교과와 심화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 10학년 과목인 『국어』 과목의 목표와 관련이 있고, 나아가 『국어』 과목 중 문학 영역의 내용과 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어』 과목의 교육 목표³³⁾는 다음과 같다.

언어 활동과 언어와 문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언어 활동의 맥락과 목적과 대상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가. 언어 활동과 언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 이를 다양한 국어 사용 상황에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나.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 사용의 원리와 작용 양상을 익혀, 다양한 유형의 국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상과 정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다. 국어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언어 현상을 계속적으로 탐구하여,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위에서 문학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익히기’, ‘사상과 정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기르기’,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려는 태도 기르기’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 10학년 『국어』 과목의 목표 중에서 문학 영역의 목표를 심화한 제7차 고등학교 『문학』 과목의 목표³⁴⁾는 다음과 같다.

33)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연구소, 『고등학교 국어(상) 교사용 지도서』, (주)교학사, 2002, 15면.

34) 김윤식 외, 『고등학교 문학 교사용 지도서』, (주)도서출판 디딤돌, 2002, 17면.

문학의 수용과 창작 활동을 통하여 문학 능력을 길러, 자아를 실현하고 문학 문화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바람직한 인간을 기른다.

가. 문학 활동의 기본 원리와 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이해한다.

나. 작품의 수용과 창작 활동을 함으로써 문학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기른다.

다.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세계를 이해하며, 문학의 가치를 자신의 삶으로 통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라. 문학의 가치와 전통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문학 문화 발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이런 목표에 따른 『문학』 과목의 내용 체계와 영역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문학』 과목의 내용 체계와 영역별 내용

영역	내용
(1) 문학의 본질	(가) 문학의 특성 (나) 문학의 기능 (다) 문학의 갈래 (라) 문학의 가치
(2) 문학의 수용과 창작	(가) 문학의 수용과 창작 원리 (나) 문학의 수용 (다) 문학의 창조적 재구성 (라) 문학의 창작
(3) 문학과 문화	(가) 문학 문화의 특성 (나) 한국 문학의 특질과 흐름 (다) 세계 문학의 양상과 흐름 (라) 문학의 인접 영역
(4) 문학의 가치화와 태도	(가) 문학의 가치 인식 (나) 문학 활동에의 능동적 참여 (다) 문학에 대한 태도

아울러 7차 『문학』 과목의 내용 체계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 『국어』 과목의 문학 영역 내용 체계와 비교해 보면, 기본 영역에 ‘문학과 문화’를 새롭게 설정하고 내용 항목을 조절하거나 심화한 것을 알 수 있다.

『국어』 과목의 문학 영역 내용 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3> 『국어』 과목의 문학 영역 체계

영역	내용		
문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의 본질 - 문학의 특성 - 문학의 갈래 - 한국 문학의 특질 - 한국 문학의 사적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의 수용과 창작 - 작품의 미적 구조 - 작품의 창조적 재구성 -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양상 - 문학의 창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에 대한 태도 - 동기 - 흥미 - 습관 -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의 수용과 창작의 실제 - 시(동시) - 소설(동화, 이야기) - 희곡(극본) - 수필 		

이상으로 『문학』과 『국어』 과목의 교육 목표와 내용 체계를 살펴 보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민족 공동체인 남한과 북한의 통일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³⁵⁾ 『문학』과 『국어』의 교육 목표와 내용 중에서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전무하다시피 한 까닭은, 교육 과정 문서를 제작할 때, 이론적으로 통일을 내세우기는 하였지만 실천적으로

35)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제작한 『통일교육지침서(학교용)』(2005)에는 교과별 권고사항으로 국어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기는 하다.

‘1.국어과 교육에서는 문학적 차원에서 남북한의 문학과 언어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그 동질성과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2.남북한 언어 비교를 통한 이질성의 확인에 머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남북한의 언어가 이질성을 지니고 있는 반면, 동질적 측면도 있으므로 서로의 장단점을 취사선택하여 우리말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는 어떻게 통일에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³⁶⁾ 교육 과정³⁷⁾이 기본적으로 교사가 가르쳐야 할 내용과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라면, 교육 과정에 어떠한 언급도 없는 내용을 교사가 인식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현재 고등학교 교실에서의 문학 수업 시간의 모습은 어떤가?

학생들은 분석에 치중하며 교과서를 새까맣게 물들이는 주입식·일제식 수업을 지루해 하면서도 대개는 받아들인다. 기존 문학 교육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진행되어 그 바탕에서 학습자를 수업의 주체로 자리 매김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지만, 아직도 많은 교실에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교사’가 ‘아무 것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작품의 여러 요소를 이리저리 해부해서 전달하고 학생들은 그것을 수동적으로 받아 적는다. 그러는 동안에 문학 작품은 교실에서 인간의 향기를 상실하고 문학에 대한 학생들의 개인적인 반응 역시 실종된다. 시간이 갈수록 학생들은 침묵하며 냉소 속에서 한 시간 한 시간의 수업을 간신히 보낸다.³⁸⁾

독자의 삶과 연관을 맺지 않은 채 분석과 감상의 결과를 전달하는 문학 수업은 학생들과 교사를 문학 감상의 과정에서 소외시킨다.³⁹⁾ 그렇기에 교사도 학생도 통일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과 경험이 없이 통일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을뿐더러 수업의 진지성을 반감시킨다.

통일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경험을 얻는 방법은 여럿일 수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교육 목표와 교육 과정, 그리고 교과서에 통일 교육의 내용을

36) 심영택, 앞의 글, 9면.

37) 구인환 등, 앞의 책, 195-202면.

‘문학 교육의 교육 과정이 갖추어야 할 적합성은 철학적 적합성, 개인적(심리적) 적합성, 사회적 적합성, 학문적 적합성이다.’

38) 안석재, 「‘문학의 즐거움’에 대한 학생들의 저항에 맞서기」, 『함께하는 국어 교육』통권 68호, 2006, 22면.

39) 안석재, 「학습자의 경험을 통해 작품 읽기」, 『함께하는 국어 교육』통권69호, 2006, 27면.

심는 것이다. 그래서 우선 『문학』과 『국어』 과목의 교육 과정에서만이라도 통일을 대비한 교육 과정의 수록이 꼭 필요하다.

4) 『문학』,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소설들

제 7차 교육 과정 아래에서 발간된 18 종류의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는 총 77편의 소설이 실려 있다. 시기별로 본 작품과 작가는 다음 표와 같다.

<표 4> 『문학』, 『국어』 교과서 수록 작품과 작가

시기	작품명	작가	수록 교과서 수
개화기와 1910년대 소설	혈의 누	이인직	6종
	은세계	이인직	3종
	금수회의록	안국선	12종
	자유종	이해조	3종
	무정	이광수	10종
1920 - 1945년대 소설	배따라기	김동인	3종
	감자	김동인	6종
	광염 소나타	김동인	3종
	술 권하는 사회	현진건	3종
	고향	현진건	8종
	운수 좋은 날	현진건	10종
	만세 전	염상섭	7종
	삼대	염상섭	3종
	화수분	전영택	5종
	탈출기	최서해	4종
	홍염	최서해	6종
	고향	이기영	5종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박태원	8종

시기	작품명	작가	수록 교과서 수
1920 - 1945년대 소설	만무방	김유정	4종
	동백꽃	김유정	12종
	무녀도	김동리	6종
	사하촌	김정한	3종
	날개	이상	12종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	15종
	복덕방	이태준	4종
	돌다리	이태준	1종
	태평천하	채만식	13종
	치숙	채만식	9종
	별	황순원	2종
	임걱정	홍명희	2종
	1946 - 1950년대 소설	논 이야기	채만식
미스터 방		채만식	2종
암록강은 흐른다		이미륵	5종
역마		김동리	10종
두 과산		염상섭	6종
목념이 마을의 개		황순원	2종
독 짓는 늙은이		황순원	2종
학		황순원	7종
갯마을		오영수	2종
비 오는 날		손창섭	8종
유예		오상원	9종
바비도		김성한	4종
불신 시대		박경리	6종
수난 이대		하근찬	8종

시기	작품명	작가	수록 교과서 수
1946 - 1950년대 소설	오발탄	이범선	9종
	사수	전광용	1종
	젊은 느티나무	강신재	5종
	광장	최인훈	17종
	나무들 비탈에 서다	황순원	1종
1960년대 이후의 소설	닿아지는 살들	이호철	1종
	꺼삐단 리	전광용	8종
	무진 기행	김승옥	10종
	역사	김승옥	1종
	서울, 1964년 겨울	김승옥	9종
	모래톱 이야기	김정환	5종
	수라도	김정환	2종
	병신과 머저리	이청준	5종
	줄	이청준	2종
	건방진 신문팔이	이청준	1종
	서편제	이청준	4종
	토지	박경리	5종
	나목	박완서	5종
	아우를 위하여	황석영	1종
	삼포 가는 길	황석영	13종
	관촌 수필	이문구	5종
	어둠의 혼	김원일	5종
	장마	윤홍길	7종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윤홍길	4종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조세희	14종
	징 소리	문순태	2종
	엄마의 말뚝	박완서	6종

시기	작품명	작가	수록 교과서 수
1960년대 이후 의 소설	우황청심환	박완서	1종
	태백산맥	조정래	1종
	사평역	임철우	4종
	숲속의 방	강석경	1종
	종횡만리	김학철	1종
	한계령	양귀자	2종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문열	5종
	외딴 방	신경숙	2종
	감자 먹는 사람들	신경숙	1종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틀니	박완서	1종
	원미동 시인	양귀자	3종
	혼불	최명희	5종
	봄바람	박상률	1종

이상과 같이 현행 7차 교육 과정 아래의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는 77편에 달하는 다양한 소설 작품들이 실려 있지만 분단과 통일을 본격적으로 다룬 작품은 찾아보기 힘들며 북한 작가가 쓴 북한 문학 작품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홍명희의 「임격정」⁴⁰⁾이나 KAPF⁴¹⁾ 계열의 작가인

40) 1986년까지는 북한의 문학사에서는 「임격정」은 보이지 않는다(이남호, 「벽초의 「임격정」 연구」, 『동서문학』, 1990) 하지만 홍명희의 손자인 홍석중은 소설 「황진이」와 「늪새바람」을 통하여 조부의 소설가적 핏줄과 부친(홍기문, 김일성종합대학교 교수)의 인문학적 소양을 이어받은, 북한에서는 유능한 소설가이다. 특히 홍석중이 북한문단에서 알려지게 된 계기는 조부 홍명희의 미완성작품인 「임격정」의 완결편을 내놓았기 때문인데, 이는 홍명희의 「임격정」이 북한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짐작하게 한다.

41) 김재용, 『북한문학의 이해』, 문학과 지성사, 1994, 157면.

‘1961년에 발족한 북한의 조선문학예술총동맹 규약에는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은 우리 나라의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발전한 진보적인 민족 문화 유산과 조선프로레타리아문학예술동맹(KAPF)의 문학 예술 전통, 특히 1930년대 항일 무장 투쟁 시기의 혁명적 문학 예술 전통을 계승 발전시킨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KAPF 문학과 항일 혁명 문학을 동

최서해의 「탈출기」, 「홍염」, 이기영의 「고향」 등 몇몇 작품은 눈여겨 볼만하다. 또한 항일조선의용군의 마지막 분대장으로 유명한 김학철의 「종횡만리」도 눈에 띈다. 연변 조선족 작가 김학철의 「종횡만리」는 일제 강점기 때 중국 땅에서 벌어졌던 조선 의용군의 항일 무장 투쟁을 그린 소설로, 투박하지만 구수하고 생생한 모국어 구사하고 있고 피나는 전쟁을 소재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 전체를 감싸는 인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까지의 남한 문학, 특히 교과서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일제 강점기 때 무장 독립 투쟁의 문학적 형상화라는 점에서 의의와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⁴²⁾

그 외에도 작품과 더불어 작가들의 일생을 통해 분단과 통일의 의미를 논의해 볼 수 있는 작품으로 월북 작가로 분류할 수 있는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이태준의 「복덕방」, 「돌다리」, 그리고 황해도에서 태어나 독일에서 사망한 이미륵의 「압록강은 흐른다」 등이 있다.

또 한국 전쟁을 소재로 한 오상원의 「유예」, 하근찬의 「수난이대」, 이호철의 「날아지는 살들」, 김원일의 「어둠의 혼」, 윤홍길의 「장마」, 조정래의 「태백산맥」, 최인훈의 「광장」 등의 작품도 눈에 띈다.

특히, 윤홍길의 「장마」는 한국 전쟁 중에 한 집에 사는 친할머니와 외할머니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그 화해의 과정을 통해 분단의 비극과 극복을 형상화한 작품이기에 더욱 눈길을 끈다. 최인훈의 「광장」은 이데올로기의 금기를 깨뜨리고 통일 문학의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⁴³⁾

하지만 이런 작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18 종류 『문학』 교과서 안에 수록된 통일 관련 소설 작품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시에 혁명 전통으로 평가하고 있다.’

42) 김윤식 외, 고등학교 『문학』, (주)도서출판 디딤돌, 2003, 294면.

43) 박은수, 「『광장』의 문학 교육적 적용 양상」, 수원대학교교육대학원, 2004, 8면.

한편,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와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는 소설은 다음과 같다.

<표 5>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수록 소설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소설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소설	
1학년	강아지똥(권정생) 옥상의 민들레꽃(박완서) 요람기(오영수) 소설 동의보감(이은성) 소나기(황순원) 흰 종이수염(하근찬) 숨 쉬는 영정(구인환) 병어리 삼룡이(나도향) 홍길동전	국어(상)	그 여자네 집(박완서) 봄봄(김유정) 구운몽(김만중) 장마(윤홍길) 삼대(염상섭)
2학년	소음 공해(오정희) 기억 속의 들꽃(윤홍길)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주요섭) 상록수(심훈) 동백꽃(김유정) 토끼전		
3학년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 (조세희) 아홉 살 인생(위기철) 오발탄(이범선) 우상의 눈물(전상국) 원미동 사람들(양귀자) 운수 좋은 날(현진건) 혈의 누(이인직) 무정(이광수) 박씨전 운영전	국어(하)	허생전(박지원) 눈길(이청준) 춘향전

이처럼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도 많은 소설이 실려 있지만, 북한 소설은 하나도 없으며 소설 내용도 통일과 관련짓기에는 힘든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교과서의 소설을 읽고 수업시간에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며 통일을 대비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현실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구인환의 『숨 쉬는 영정』은 한국 전쟁이 낳은 이산 가족의 아픔을 통해 통일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며, 윤홍길의 『기억 속의 들꽃』은 교활한 어른과 힘없는 어린아이 사이의 갈등과 아이의 죽음을 통해 인간을 황폐화시키는 한국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게 하는 소중한 소설 작품이다.

2. 북한의 문학 교육

1) 이론적 배경

북한은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를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기초 기간으로 삼아 공산주의 지도 이념을 도입하여 구소련의 사회주의 교육을 적용하는데 주력하면서 교육과 생산 노동의 결합을 추진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공산주의 지도 이념은 곧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말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역사발전과 사회발전의 원리를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로 설명하며, 모든 사회는 정치·법률·교육·종교 등을 포함하는 상부구조와 생산방식과 생산관계로 볼 수 있는 하부구조를 갖고 있는데, 상부구조는 하부구조의 영향을 받아서 구체적인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런 관점은 사회의 하부구조인 생산방식과 생산관계를 변화시키면 교육의 목적과 과정 그리고 방법도 자연적으로 변화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하부구조의 질적·구조적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고, 교육의 과제는 필연적으로 혁명적 사업에 관계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육은 계급적 성격을 갖게 된다. 계급적 성격이 강조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교육관은 교육이 계급 투쟁의 수단이 되고 무대가 되어야 하며, 계급 투쟁에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교육의 ‘계급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교육의 ‘혁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마르크스는 교육의 원리와 방향도 제시했는데, ‘종합기술교육의 원칙’이 그것이다. ‘종합기술교육의 원칙’은 노동자의 해방, 노동의 인간화를 위해서 교수와 생산 노동의 결합을 지표로 하는 원칙을 의미하며 모든 면에서 발달된 인간의 형성을 목표로 한다.⁴⁴⁾

그리고 레닌은 ‘계급성’에 교육의 목적을 두었으며, ‘이론과 실천의 결합’을 교육 방법으로 선택하고 ‘사회주의적 민주제도’와 ‘중앙통제’라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교육의 계급성’에 대한 입장으로 ‘학교는 사회주의 사회의 주인공이며 노동자와 농민 자신들, 즉 프롤레타리아 자신의 것으로서 학교교육은 노동자 계급만을 위한 교육이라는 계급성을 추구할 것’을 주장했다. 또 그는 ‘교육과 노동, 이론과 실천의 결합 원리’에 대해서 ‘학교에서 학습된 이론은 추상적이거나 형식적인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생산 활동과 실용적인 기술과 결합되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실용주의적 교육관도 밝혔다.⁴⁵⁾

이상과 같은 마르크스-레닌주의는 북한 교육사상의 이론적 배경이 되었으며 북한은 이러한 이론을 실천 가능한 정책과 제도로 현실화하였고 주체사상의 교육관으로 계승 발전시켰다.

44) 안인희, 『교육 고전의 이해』, 이화여대출판부, 1975, 48-56면.

이장휘, 『북한의 문학 교육 연구』, 고려대학교교육대학원, 2002, 17면.

45) 김동규, 『북한의 교육학』, 문맥사, 1990, 20-32면.

이장휘, 앞의 글, 18면.

주체사상의 교육관은 주체사상에 바탕을 둔 교육관으로, 이는 김일성이 1948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권을 수립하면서 도입한 구소련의 학교 교육론과 항일 무장 투쟁에서 성립된 혁명 사상을 정치 이데올로기로서 학교 교육에 정착시키면서 탄생한 것이다. 이는 주체사상의 지도 원칙으로 제시되고 있는 ‘자주적 입장, 창조적 입장, 사상의식’을 내세움과 동시에 학교교육에 있어서도 주체사상의 교육을 강조한다. 그래서 취학 전 교육과 초등교육 그리고 중등교육은 주체사상의 길을 함양시키는 기관으로, 고등 중학교에서는 주체적인 혁명적 세계관을 확립시키는 기관으로, 대학은 주체적인 혁명적 세계관의 확립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꾼의 성장을 유도하는 기관으로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2) 주체문예이론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적 문예사상과 그의 구현인 당의 문예정책의 창조성과 정당성을 해설 선전하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 밑에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의 발전에서 달성한 거대한 성과의 경험들을 이론적으로 개괄하여 유구한 민족문화유산을 연구하고 체계화한다.⁴⁶⁾

위 글은 북한 문학의 이론적 원칙으로서 주체사상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때 가치있는 문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문학이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혁명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는 당연성의 논리가 근간이 되는 주체문예이론은 문예에서의 주체 확립을 대 원칙으로 한다.⁴⁷⁾

46) 『문학예술사전』, 과학백과출판사, 1972.

47) 송명희, 『북한의 문학과 주체문예이론2 - 1980년대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호, 1999, 2면.

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북한의 문예이론은 사회주의 문학관, 혹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마르크스가 말한 ‘인간 의식이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는 유물론적 사고는 북한 문학에서도 적극 추구한다. 이러한 사회주의적 유물론적 관점은 문학을 수단화하고 필연적으로 계급화할 수밖에 없으며, 문학을 결국 계급 투쟁의 길로 나서게 한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북한은 인민대중이 처한 객관적인 현실을 정당하게 인식시키고, 그것을 정당하게 문학적 내용으로 반영시키는 창작 기법으로 ‘사실주의’를 가장 긍정적인 문학이라고 평가한다.⁴⁸⁾

북한이 수용한 사실주의란, 객관적 현실을 정당하게 인식하고 진실하게 반영하는 창작방법으로 실재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그것을 생활 자체의 형식으로 객관적으로 묘사하며 현실 생활의 본질과 합법칙성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북한에 도입된 사실주의는 사실주의 발전의 최고 단계일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모든 사실주의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우월한 창작 방법이며 사실주의의 발전사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한 창작방법⁴⁹⁾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로 나아가게 된다.

이처럼 가장 발전적인 문학 형태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김일성은 ‘민족적인 형식에 사회주의적인 내용을 담는 것’⁵⁰⁾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걸맞는 사회주의적 내용은 “혁명적인 내용, 근로인민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내용,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게 하자는 내용 등이다.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은 혁명적인 내용, 계급적인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인민대중을 공산주의적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

48) 이장휘, 앞의 글, 27면.

49)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문학예술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72, 492면.

50) 김일성,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315면.

계급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혁명과 건설이 민족 국가 단위로 진행되고 인민들의 정치생활, 경제생활, 문화생활이 민족적 특성을 띠고 있는 것만큼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의 내용은 반드시 민족적 특성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민족적 형식이란 자기 나라 인민이 좋아하고 그들의 구미에 맞는 형식”⁵¹⁾이라 말하면서 사회주의적 내용을 민족적 형식에 담아 표현해야만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이 혁명과 인민을 위한 주체적인 혁명문학예술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결국,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혁명적인 내용’과 ‘민족적인 형식’을 바탕으로 혁명과 인민대중의 이익에 투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중요한 사상적 도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내용과 형식 두 측면간의 유기적인 통합을 이상적으로 추구한다. 여기서 내용이라는 것은 바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방법론 내부에 자리잡고 있어야 할 ‘당성’과 ‘계급성’, 그리고 ‘인민성’을 말한다.⁵²⁾

‘당성’은 사회주의적 경향성 또는 이념성과 같은 말이다. 당을 계급의 총화로 보고, 당성을 계급성이 고도로 집약된 결과로 보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문학과 당을 연결한 것이다. 이를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에 대한 끊임없는 충실성’으로, 결국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충실성을 의미하는 말이다.

‘계급성’은 모든 예술이 예술가의 계급적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는 진제 아래에서 제기되는 것이다. 문학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봉사하고 그들의 이익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북한은 ‘노동 계급성’이라고 언급하면서 노동 계급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혁명 투쟁과 건설 사업에서 노동 계급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형상화하는 것과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51)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앞의 책, 185면.

52) 이장휘, 앞의 글, 29-30면.

본성과 지주, 자본가 계급의 착취적 본질, 자본주의 제도의 반동성과 부패성을 예리하게 폭로하고,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인민성’이란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이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 대중의 이익을 옹호하고 그들의 생활과 감정을 정당하게 표현하여야 하며 수백만 근로 대중을 위하여 철저히 복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인민 대중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반영하며, 인민들의 사상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인민들의 사상 미학적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키느냐의 관건이 바로 문학에서 이야기하는 ‘인민성’의 구현 척도이다.

나) 종자론

북한의 ‘주체적 창작 활동’에서 중심을 이루는 것은 ‘종자론’이다. 이 문예이론은 김정일⁵³⁾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종자’는 남한의 주제, 소재, 사상의 개념과 유사한 것이며, 기본적으로 작품 속에 들어 있는 핵으로 작가의 사상을 넘어선 개념이다.

종자는 생활의 사상적인 알맹이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상과 구별된다. 종자는 리성으로뿐만 아니라 감성으로도 파악되며 논리적 사유만 아니라 형상적 사유도 계발시킨다.

소재가 문학 작품의 형상의 바탕으로 되는 생활 자료라면 종자는 생활의 사상적인 알맹이이다. 소재와 종자는 모두 생활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⁵⁴⁾

즉, 이론상 북한에서 말하는 ‘종자’는 소재, 주제, 사상의 변증법적인 통

53) 김정일,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사회과학출판사, 1975.

54) 김정일, 『주체문학론』,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180-183면.

합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주체 문학이 활성화되던 시기에 문학 창작의 완숙한 논쟁을 겪은 후에 나온 이론으로 북한이 체계적으로 정리한 종자의 주요 본질⁵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자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또한 모든 작품들은 각기 자체의 고유한 내용과 질적 특성을 가진 종자가 있어야 한다.

둘째, 종자는 주제와 소재, 사상과 같은 사상 예술적 요소들을 자체 내에 지니고 있지만, 그것은 창작자의 사상 미학적 의도로 파악된 것일 뿐이다. 진지한 창조적 탐구와 사상에 의한 형상 작업을 거쳐야 완성된 작품의 주제 사상으로 실현된다. 즉, 기존의 주제, 사상, 소재들을 유기적인 관련 속에서 하나의 생명체로 통일시키는 변증법적인 개념이다.

‘종자’를 설명해 주는 당 정책상의 원칙은 다음 김일성의 교시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우리의 문학 예술은 절대로 혁명의 리익과 당의 로선을 떠나서는 안 되며, 착취 계급의 취미와 비위에 맞는 요소를 허용하여도 안 됩니다. 오직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하게 의거한 혁명적 문학 예술만이 진정으로 인민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 대중을 공산주의적 혁명 정신으로 교양하는 당의 힘있는 무기로 될 수 있습니다.

즉, 주체적인 종자 이론으로서 문학 예술 작품의 종자는 먼저 당 정책의 요구에 맞을 뿐 아니라, 형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이때, 종자를 잡는 원칙은 새롭고 독창적인 종자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문학에서 주제와 사상은 종자에 의해 규정되며, 예술적 형상도 종자에 따라 좌우되기에, 종자는 창작의 전 과정에 전면적으로 작용하는 근

55) 채지영, 「남북한 현대 소설 교육의 비교 및 전망」, 이화여대교육대학원, 1998, 59면.

본 고리에 대한 사상이며 작품의 사상 예술적 질을 규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을 밝혀주는 기초에 관한 사상이다.

따라서 북한의 문예이론에서 종자를 바로잡는 것은 형상 창조에서 ‘일반화’와 ‘개성화’를 통일적 과정으로 실현하고 ‘사상성’과 ‘예술성’을 옹계 결합할 수 있게 하는 기초 과정이며, 작품의 성과 여부를 좌우하는 근본 조건의 하나이다. 훌륭한 종자를 ‘잡기’ 위해서는 소위 현대의 유일하게 옳은 창작 방법이라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 방법’을 체득하여야 하며, 그것을 창작에서 훌륭히 구현할 수 있도록 예술적 기량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고 한다.⁵⁶⁾

다) 공산주의적 새 인간학

70년대 이전의 북한 문학이 공산주의 인간학을 전개해 온 역사라면, 70년대 이후는 주인공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커나가는 과정을 오직 수령의 가르침과 감화에 의한 것으로 그려야 한다고 여기기 시작한 시기다.⁵⁷⁾ 특히 9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나온 ‘우리식’의 문학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과 결합되어 나타난다.

‘공산주의적 새 인간학’, 즉 ‘주체의 인간학’은 수령과 주체사상을 모든 것의 중심에 놓으며, 새로운 인간학이 그럴 공산주의자는 수령의 가르침대로 주체사상을 실천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였다. 그는 수령을 좇아 ‘자기 나라 혁명의 이익에 맞게 모든 일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는’ 주인다운 주인공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수령의 혁명 역사를 산 귀감으로 하여, 이를 본받으려는 것은 새 인간학 탐구의 중요한 방법으로 간주된다.⁵⁸⁾

새 인간학이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를 그려야 하고 주체형의 공산주의자가 정치적 생명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하는 것이라면, 새 인간학

56) 채지영, 앞의 글, 61면.

57) 신형기, 『북한소설의 이해』, 실천문화사, 1996, 29면.

58) 신형기, 위의 책, 30면.

은 정치적 생명의 문제를 핵심으로 하는 것이다. 정치적 생명이란 정치 이념이나 정치적 신조를 지키려는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수령과 당, 그리고 인민대중이 같은 운명을 갖고 같은 길을 가는 유기적 생명체를 살게 하는 힘이다. 정치적 생명은 이 유기체가 사상 이념적 일체화에 이를 때 고조될 수 있는 것으로, 수령은 여기에 정치적 사상 이념을 불어 넣어 주는 생명의 원천이다. 수령을 뇌수(腦髓)로 하여 그 주위에 당과 인민이 결합되는 것이 이 유기체의 구조이다.⁵⁹⁾

‘공산주의 인간형’은 인물의 성격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일반적인 인물’과 ‘개성적인 인물’의 ‘변증법적 통합 과정’을 거쳐 창조되는 인물을 ‘전형적인 인물’이라 한다. 특히, 이러한 인간형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성격’과 ‘전형’이라고 해서 따로 문학 이론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김일성과 김정일 모두 인물에 대한 언급을 통해 전형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먼저 ‘인물의 성격’이란,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특성을 가진 개성적인 인간으로 그려지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북한의 『주체 문학론』⁶⁰⁾에 의하면 작품 속의 인물이란, 이상적인 인물로 공산주의 인간학의 전형이다. 기존의 인물 형상을 비판하면서 고매한 정신의 소유자인 ‘공산주의 인간’을 제시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긍정 인물이나 부정 인물의 성격을 그리는 데는 그의 계급적 처지와 요구를 밝혀내기만 하면 일반화가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편향이다. 물론 계급적 처지와 요구를 밝혀내는 것은 인물을 그리는 데서 기본 요구의 하나로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인물을 순전히 계급적 이해 관계의 견지에서만 그리게 되면, 그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정신 도덕적

59) 신형기, 앞의 책, 31면.

60) 김정일, 『주체 문학론』, 조선로동당출판사, 평양, 1992.

풍모를 온전히 갖추지 못한 기형적인 존재로 될 수 있다. 일부 작품에서 이따금 인정미와 정서가 없고 생활도 모르는 메마르고 딱딱한 인물이 나오는 것도 결국 따져 놓고 보면, 그의 계급적 처지와 요구를 밝히는 데만 치우치고 있는 것과 적지 않게 관련이 있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원만히 보여 주려면 그의 계급적 요구와 함께 정신 도덕적 풍모를 깊이 있게 그려야 한다.⁶¹⁾

즉, 도덕적 풍모를 지닌 ‘공산주의 인간형’은 개성적 인물과 일반적 인물의 통합이다. ‘개성화’된 성격에 그 시대의 정신과, 그 주인공이 속한 계급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질들을 반영하고 있는 인간형으로, 전형적 인물로 가는 ‘일반적 인물’과 ‘개성적인 인물’의 ‘변증법적 통일 관계’를 거치는 것이다. 바로 그러한 특질을 가진 인간을 ‘전형’, 또는 ‘전형적 성격’이라고 하며 ‘공산주의 인간학’이 구현하는 인간형이다.

3) 북한의 문학 교육 실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노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 북한 헌법 4조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 북한 헌법 39조

위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의 교육은 공산주의적 새 인간을 기르는

61) 김정일, 앞의 책.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북한의 교육학은 정치의 시녀로서 8·15 해방 후 상당 기간에 걸쳐 소련 교육학의 직역판이어서 독자적인 특색은 전혀 볼 수 없었다가 1970년대에 이르러 ‘우리의 사회주의적 교육학’이라는 용어 사용을 처음 사용하였다. 김일성의 방송대학 강의록에 의하면 ‘교육이란 사람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사회적 인간으로 키우는 사업’이라고 하여 ‘사상 의식 수준과 문화 수준이 건장한 체력을 갖추어야만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지고 사회 생활에 주인답게 참가할 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혁명적인 사회적 인간으로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김일성은 ‘사회주의 교육의 기본 원리는 사람들을 혁명과 건설에 주인답게 참가할 수 있는 사상과 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가진 믿음직한 혁명 인재로 키우는 것’⁶²⁾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교육적 이념 아래 북한의 『문학예술사전』에서 정의하는 문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문학은 인민대중을 당의 유일사상,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사상교양의 강력한 수단으로, 생활과 투쟁의 훌륭한 교과서로 복무하고 있으며, 당의 유일사상으로 일관되고 로동계급적 선이 똑똑히 선 당적이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으로, 사상성과 예술성이 결합된 참다운 혁명적 문학으로 찬란히 개화 발전하고 있다.⁶³⁾

문학 교육의 방향도 이와 같은 문학의 내용과 동일하게 교육 사업과 문학 예술이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혁명적 세계관을 세우는 것을 기본 과업으로 내세우며 이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

62) 김일성, 『방송통신대학 강의록Ⅱ』, 극동문제연구소, 1974.

63) 사회과학원문학연구소, 『문학예술사전』, 1972.

에서는 문학 교육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후대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킨다.
2. 자라나는 세대들을 사회주의, 애국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킨다.
3. 후대들의 인식 능력을 발전시킨다.
4. 그들의 혁명적 정서를 발전시킨다.
5. 그들의 사회 정치 활동능력을 키운다.
6. 우리말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키며 우리 문학 발전의 균중적 토대를 닦는다.⁶⁴⁾

이런 역할을 가지면서 북한문학 교육은 크게 ‘문예이론’과 ‘문학사-문학사의 흐름, 대표작과 작가’, 그리고 ‘작품 분석’ 및 ‘외국문학’으로 나눌 수 있다.

북한의 『국어문학 : 고등중학교 4~6』의 ‘교수요강’에서 제시한 해결 과업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⁶⁵⁾

첫째, 모든 학생들을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풍부한 정서를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워야 한다.

둘째, 학생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문예사상과 친애하는 지도자 선생님의 독창적인 문예이론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우리 문화어의 기초 이론과 문학의 일반적 개념과 본질을 똑똑히 인식하고 문학 작품을 자립적으로 분석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넷째, 말과 글을 다루는 창조적 능력을 완성하여야 한다. 살려 읽기와 속

64)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 교육사상』 제3권, 교육과학연수회, 1972, 85-98면.

65) 교육위원회 보통교육부, 『교수요강-국어문학 : 고등중학교(4-6학년)용』, 1984, 3-4면.

읽기의 기능을 완성하여 글을 류창하게 빨리 읽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원고 없이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말하기 기능을 완성하여 당 정책 해설, 토론, 웅변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사회 정치 활동에 적극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기, 감상문, 기행문, 벽소설 등을 쓸 수 있는 글짓기 기초 기능을 완성하도록 하여야 한다.⁶⁶⁾

또한 문학 교수적 요구로 ‘깨우쳐주는 교수 방법’을 들면서, 문학 교육에 있어서는 다음을 지적하고 있다.

문학 작품 연구는 철저히 원문에 대한 자체에 기본을 두고 주체, 사상, 종자, 구성, 형상 등 작품의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도 학생 자신의 분석에 기초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교재가 주로 작품 발췌로 되어 있는 조건에서 가능한 모든 조건을 리용하여 학생들이 작품 원문을 읽도록 하여야 한다.⁶⁷⁾

이는 교수-학습에 있어서 교과서에 작품이 발췌되어 있는 경우 교사가 작품의 원문을 제시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리고 문학사 교육에만 언급된 작품은 교사의 설명으로 대체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북한의 문학 교육은 정치와 교육을 전면에 내세워 교육을 ‘혁명’의 이익을 구현하는 정치의 수단으로 간주하며, 자라나는 세대들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사고 능력의 개화를 강조한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억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산주의 근본 이념에는 창의력과 창조성을 강조하

66) 『교수요강-국어문학 : 고등중학교(4~6학년)용』, 교육위원회 보통교육부, 1984, 3-4면.

67) 교육위원회 보통교육부, 위의 책, 4-5면.

는 ‘과학’을 주장하였으나, 북한처럼 개인 숭배의 환경 아래에서는 비합리적인 관념이 교육을 독점하고 있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그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염두에 두면서 인류의 정신사에 풍부하게 저장되어 온 많은 지식과 인간 존중의 가치관에 어긋나지 않게 이어가려는 것과 뚜렷이 대조된다.⁶⁸⁾

가) 북한의 문예 이론

『국어문학』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문예 이론 관련 교육 내용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축을 두고 ‘계급적 성격’, ‘종자’, ‘성격과 전형’, ‘문학 작품의 구성’, ‘문학 작품의 언어’, ‘문학 작품의 종류와 형태’ 등으로 구분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6> 북한의 고등중학교 문예 이론⁶⁹⁾

학년	단원	내용
4	문학은 인간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은 인간학이다. 산 인간을 그리며 인간에게 복부한다는 데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본성이 있다 · 우리 당이 요구하는 인간학은 공산주의적 새 인간학이다
4	문학 작품의 주제와 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란 작품에 그려진 다양한 생활 모습들을 통하여 작가가 독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생활과 투쟁의 의의 있는 기본 문제를 말한다 · 사상이란 문학 작품에 묘사된 생활에 대한 작가의 견해와 판단으로, 작품에 설정된 기본 문제인 주제에 대한 작가의 해명과 결론이다

68) 장덕삼, 통일에 대비한 한국 교육의 방향, 『교육연구』, 2000.

69) 교육위원회 보통교육부, 『교수요강-국어문학 : 고등중학교(4-6학년)용』에서 정리. 이장희, 앞의 글에서 재수록.

학년	단원	내용
4	문학의 계급적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의 계급성이란 일정한 역사적 시기 일정한 계급에 속한 사람들의 생활과 이해관계가 작품에 표현된 것을 말한다. 계급성은 주인공의 형상(전형성), 갈등, 작품의 종자, 주제와 사상에서 표현된다. • 문학의 계급성은 작가의 계급에 좌우되며, 오직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한 작가들만이 계급적 이해관계를 철저히 표현할 수 있다. 문학의 노동계급성은 노동계급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철저히 반영된 것으로, 당성, 인민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4	문학작품의 종자 ⁷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자란 작품의 핵으로서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가 있고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이 되는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이다. • 종자의 기능은 첫째, 작품의 사상성을 높여준다. 둘째, 작품의 형상을 생동하게 그릴 수 있게 한다. 셋째, 작품을 쓰고 싶은 불같은 창작적 열정과 풍부한 예술적 환상을 안겨준다. 넷째, 창작에서 속도전을 벌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5	성격과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격이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성(개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인간 모습으로, 등장인물의 성격은 구체적이며 생동하게 그려진 비반복적인 개성이다. • 전형이란 다른 인물들과 구별되는 비반복적인, 개성화된 성격이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사상 정신적 특질을 함께 재현한 성격이다. 따라서 전형은 개성적인 것과 일반적인 것의 통일이 된다. 공산주의적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주인공들은 전형적 성격으로 그려졌으므로 모든 사람들을 고양할 수 있는 것이다.

70)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 문제라는 점에서 남한의 '주제'와 연관지을 수 있다.

학년	단원	내용
5	문학작품의 구성 ⁷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이란 작가가 생활을 그리는 모든 요소들(구성의 요소 : 인물, 갈등, 이야기 줄거리, 감정 조직)을 서로 흠어놓지 않고 조화롭게 맞물려서 재미있고 뜻이 같은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나가고 꾸미는 형식을 말한다. · 구성을 이루는 요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물 : 인물들 사이의 생활적인 관계로 극적인 관계라 한다. 주인공-부차적 인물, 긍정인물-부정인물로 나뉜다. 2. 갈등 : 예술적 갈등이란 사회계급적 처지와 사상적 견해, 생활에 대한 지향과 이상, 성격과 취미 등에서 서로 대립되는 인물들 사이의 충돌과 투쟁을 말한다. 갈등에는 기본갈등-부차적 갈등, 적대적 갈등(계급사회의 근본모순에 기초한 갈등)-비적대적 갈등이 있는데, 사회주의 제도에서는 비적대적 갈등만이 있다. 3. 이야기 줄거리 : 등장인물들의 호상관계와 갈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의 발생-발전-절정-해결의 단계로 갈라진다. 4. 감정 조직 : 생활의 논리를 따라 인간의 감정세계를 긴장-완화, 축적-폭발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펼쳐보임으로써 성격의 본질을 정서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다.
6	문학작품의 종류와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작품의 종류란 작품에서 생활을 어떤 방식으로 그려는가 하는 그 특성에 의하여 갈라지는 작품의 갈래를 말한다. · 묘사방식(어떤 방법으로 작품 속에서 생활을 펼쳐는가)에 따라 구분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사적 묘사방식⁷²⁾ : 객관적 입장에서 인간생활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소설, 서사시, 동화, 우화 등이 있다. 2. 서정적 묘사방식 : 생활에서 받은 작가의 느낌을 직접 표현하는 방식으로 서정시, 가사 등이 속한다. 3. 극적 묘사방식 : 말과 행동으로 생활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극문학, 영화문학, 가극문학 등이 속한다. 4. 서정서사적 묘사방식 : 서정적 묘사방식과 서사적 묘사방식이 결합된 형식으로 서정서사시, 이야기시나 수필, 기행문 등이 속한다. · 다른 기준에 따라 세분되기도 한다 예) 소설 형태의 크기에 따라 : 단편/중편/장편소설 서정시 형태가 송시, 정문시, 풍자시 등으로 갈리는 것

학년	단원	내용
6	문학작품의 언어 ⁷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이 인간생활을 그리는 수단은 언어이다. 문학적 언어의 바탕은 인민들이 쓰는 입말언어이다. · 문학작품의 언어가 가지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형상적인 언어 : 묘사대상의 속성과 특징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말을 골라 쓰며, 고유어가 바탕이 된다. 2. 정서적인 언어 :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숭고한 감정을 안겨준다. 3. 비반복적이고 개성적인 언어 : 작품마다 언어가 특징이 있다. · 문학작품에서 쓰이는 언어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작가의 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설화 : 등장인물들의 관계와 사건 등을 작가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듯 쓴 것으로 입말체의 언어이다. 나. 묘사 : 인물묘사 -초상묘사/심리묘사/행동묘사 등 환경묘사 -사회력사적 묘사/세대풍속 묘사/자연묘사 등 다. 주정도로 : 작가가 등장인물들의 모습이나 사건 등에 대한 자신의 사상 감정, 견해와 평가를 힘있게 드러내는 말 라. 등장인물들의 말 : 대화와 혼자말이 있다.
6	창작방법과 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방법이란 작가가 생활소재를 선택하며 그것으로 생활을 그리는 데서 의거하는 원칙이다. · 예술작품을 창조하는 두 가지 경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실주의 : 현실생활을 그대로 보여주려는 경향의 창작방법 사실주의→비판적 사실주의→사회주의적 사실주의로 발전 2. 낭만주의 : 현실에 있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희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을 환상적으로 보여주려는 경향의 창작 방법

71) 남한의 '구성의 3요소'인 인물, 배경, 사건과 비슷하며, '감정조직'이라는 용어가 이채롭다.
 72) 남한의 서사적 갈래, 서정적 갈래, 희곡적 갈래, 교술적 갈래와 비슷하다.
 73) 통일을 가로막는 큰 요인 중의 하나가 언어의 이질화라고 할 때, 문학 작품의 언어에

학년	단원	내용
6	창작방법과 사조 ⁷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를 동경하는 진보적 량만주의와 과거의 안은한 생활을 그리워하는 반동적 량만주의로 나뉘며, 진보적 량만주의는 혁명적 량만주의로 발전하다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구성성분으로 되었다. · 사조란 일정한 시대의 일정한 계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사상적 경향으로, 문학사조란 일련의 작가들의 창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상이예술적 창작적 경향을 말한다. · 우리 나라의 진보적인 문학 사조는 ‘사실주의, 진보적 량만주의→실학과 문학사조→계몽기 문학사조→1920년대초의 비판적 사실주의→계급 및 민족적 해방투쟁 시기 주체사상의 령도를 받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로 발전을 해 왔다. · 우리 시대 유일하게 옳은 창작방법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이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상과 같은 북한의 고등중학교 문예 이론은 북한의 주체적 문예 이론의 내용을 대부분 함유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문학 교육이 주체적 문예 이론에 대한 지식을 강조하며 문학 교육의 영역과 텍스트 선정에 있어서도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작품이나 주체사상에 대한 의도적 해석 가능한 작품에 가치를 둔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⁷⁵⁾

대한 북한 문학의 생각을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다. 인민들이 쓰는 입말 언어와 고유어를 바탕으로 작품마다 고유 특징이 있는 언어를 사용하기에, 문학 작품에 쓰인 언어는 작가의 사상과 견해를 힘있게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74) 남한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인 진보적 량만주의, 혁명적 량만주의, 실학과 문학사조 등의 용어는 남북이 앞으로 함께 고민하며 통일시켜 나가야 할 것들이다.

75) 이장희, 앞의 글, 44면.

나) 문학사적 흐름, 대표 작가와 작품

북한은 사회경제적 관점에 의존하여 역사를 기술한다. ‘조선력사’의 발전을 유물론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정리하고 있으며, 문학사도 역사의 일부라는 점에서 그에 따르고 있다. 유물론적 관점에서 우리의 역사를 ‘원시공산사회-고대노예사회-중세봉건사회-근대자본주의사회-공산주의사회’로 보고, 보편적인 세계사의 발전 단계를 정상적으로 밟아 왔다는 쪽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있다.⁷⁶⁾

다음의 표에서 지금까지의 북한 문학 교육에 있어서의 문학사적 흐름과 작가, 작품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7> 북한 문학 교육의 문학사적 흐름과 작가, 작품⁷⁸⁾

시기구분			문학 경향 ⁷⁷⁾	작가(국가) - 작품	
원시	원시공동체사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계급없는 생활반영		가락국 - 구지가
고대	노예 소유 자사 상	고조선 부여 진국 등	계급문화	설화	고조선 - 단군 신화 부여 - 해모수 설화

76) 문선희, 『북한의 고등중학교 문학 교육 : 남한과의 비교 및 지향점 모색』,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1999, 47면.

77) 문학 경향의 용어가 남한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 원시 시대를 계급없는 생활 반영, 고대를 계급문화, 중세를 반봉건 반침략 애국투쟁이라고 한 것 등은 앞으로 남과 북이 함께 통일시켜 나가야 할 부분들이다.

78) 교육위원회 보통교육부, 『국어문학-고등중학교4~6』, 1984에서 정리.
문선희, 위의 글에서 재수록.

시기구분		문학 경향	작가(국가) - 작품		
중 세 79)	봉 건 사 회	고구려 백제 신라	설화	고구려 - 주몽설화, 을지문덕 이야기, 온달이야기 백제 - 온조와 비류, 도미의 안해 신라 - 박혁거세 전설, 설씨와 가실	
			시가	고구려 - 인삼노래 백제 - 정읍사 신라 - 혜성가 등 향가	
		후기 신라 발해	설화	신라 - 왕의 귀는 노새귀, 에밀레종	
			시가	발해 - 왕효림의 '달을 보고 고향을 생각하며'	
		첫 통일 국가 고려	반 봉 건 반 침 략	설화	설죽화, 부여군의 안해
				참요	흑책요(목책요)
				민요	사리화
				고려 가요	사모곡, 청산별곡, 서경별곡
		리 조	애 국 투 쟁	한시	리규보 - '농부를 대신하여' 등
				시조	김중서 -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남구만 - '동창이 밝았느냐'
				가사	정철 - 관동별곡 박인로 - 태평사, 선상탄
				민요	쾌지나 칭칭나네, 강강수월래
				한시	정약용 - 적성촌의 오막살이 김려 - 방주의 노래
				소설	15세기 : 김시습 - 금오신화 16세기 : 립제 - 재판받는 쥐 17세기 : 허균 - 홍길동전, 김만중 - 사씨남정기 작가미상 - 임진록, 전우치전 18세기 : 박지원 - 량반전, 허생전 춘향전, 심청전, 흥보전, 토끼전, 사성기봉, 쌍천기봉, 옥루몽 19세기 : 배비장전, 채봉감별곡

시기구분		문학경향		작가(국가) - 작품
해방 전	1910년대 이후 1930년대 초반	해방 전 진보적 문학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 (1910 - 1920)	라도향 - 행랑자식, 병어리 삼룡이, 지형근 리익상 - 광란, 쫓겨가는 이들 현진건 - 빈처, 술 권하는 사회, 운수 좋은 날 ⁸⁰⁾
			초기 프롤레타리아 문학 (1920년대 전반)	최서해 - 탈출기, 박돌의 죽음, 기아와 살육, 큰물 진 뒤, 홍염 조명희 - 농촌사람들, 저기압 리상화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폭풍우를 기다리는 마음 저무는 놀안에서 리기영 - 민촌, 가난한 사람들, 고향 송영 - 석공조합대표
			프롤레타리아 문학 (1920년대 후반기 - 1930년대 초반기)	조명희 - 락동강 리기영 - 원보, 고향 강경애 - 인간문제 박세영 - 산제비
1930년대 부터 1940년대	항일 혁명 문학 ⁸¹⁾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	김형직 - 전진가, 정신가, 명신학교교가 남산의 푸른 소나무 짓밟힌 동포야 일어나거라 강반석 - 하늘은 양 높고, 만경대에 봄이 와 도 김일성 - 연극 :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 명, 꽃 피는 처녀, 안중근 이등박 문을 쏘다, 성황당, 경축대회, 3인 1당, 혈분만국회, 딸에게서 온 편 지, 지주와 머슴꾼, 아버지는 이겼 다, 승냥이, 계다짜이 운다 가요 : 단심줄, 반일전가, 조선의 노래, 조국광복회 10대강령가 김혁 - 조선의 별	

79) 남한의 '통일 신라'가 북한에서는 '후기 신라'라 불리며, 말해의 노래와 18세기 소설 '사성기봉'과 '쌍천기봉'이 수록된 것, 남한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황조가', '사미인곡', '속미인곡' 등의 시가가 다루어지지 않고 고전 소설의 비중이 더 많은 것 등이 이채롭다.

시기구분		문학경향		작가(국가) - 작품				
해방 후	1940년대 이후	새나라 건설 시기 문학	김일성 찬양	리찬 - 김일성장군의 노래(혁명송가)	조기천 - 백두산(장편 서사시)			
			당의 혁명 전통	한명천 - 장백산(서정시)	천청송 - 유격대(소설)			
				김승구 - 내 고향(영화문학)	박령보 - 태양을 기다리는 사람들(희곡)			
				새나라 건설을 위한 인민의 모습	김우철 - 농촌위원회의 밤(서정시)	리기영 - 땅(장편소설), 개벽		
			남조선의 미국축출 애국투쟁	리복명 - 로동일가(단편소설)	조기천 - 항쟁의 려수(련시)	리동규 - 그 전 날 밤(단편소설)	남궁만 - 하의도(희곡)	
			1950년대 전후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영웅 문학	김일성 찬양	백인준 - 크나큰 그 이름 불러(서정시)	김우철 - 경애하는 수령(서정시)	김복원 - 우리의 최고사령관(가사)
					인민군의 용감함과 대중적 영웅주의	석광희 - 결전의 길로(가사)	최로사 - 샘물터에서(가사)	조기천 - 조선은 싸운다(서정시)
	안룡만 - 나의 따발총(서정시)	박세영 - 나팔수(서정시)				석광희 - 조선의 길로(시)		
	황건 - 불타는 섬(단편소설)	윤세중 - 구대원과 신대원(단편소설)				천세봉 - 싸우는 마을 사람들(중편소설)	한래천 - 명령은 하나밖에 받지 않았다(희곡)	
	미제의 만행과 최악 폭로	백인준 - 얼굴을 붉히라 아메리카여(풍자시)			김형교 - 백다구 장군(풍자소설)	송영 - 강화도(희곡)		

- 80) 해방 전의 작품들은 비교적 남한 『문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들과 유사하다. 특히,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과 최서해의 「탈출기」, 이기영의 「고향」은 앞으로 다룰 '통일 대비 문학 교과서'에 수록되어 통일 대비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작품들이다.
- 81) 1930년대-1940년대의 항일혁명문학부터 문학경향은 물론 작품의 내용에서도 김일성 관련 작품이 많이 등장하는 등 남한의 문학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기구분		문학경향		작가(국가) - 작품
전쟁 후	1950 년대	전후 복구 건설 시기 문학	김일성 찬양	원종소 -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송가) 박승수 - 우리의 최고사령관(서정시) 조벽암 - 광장에서(서정시) 정문향 - 조국땅 한끝에(서정시)
			인민들의 복구건설 투쟁의지	류종대 - 복구건설의 노래(가사) 정문향 - 새들은 숲으로 간다(서정시) 유항림 - 직맹반장(단편소설) 변희근 - 빛나는 전망(단편소설) 윤세중 - 시련 속에서(장편소설) 리동춘 - 위대한 힘(희곡)
			도시, 농촌 인민들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투쟁	정서춘 - 등불(서정시) 김복원 - 그는 이렇게 회답을 쓴다(서정시) 리용악 ⁸² - 평남관개시초(시조) 천세봉 - 석개울의 새 봄(장편소설) 신고송 - 선구자들(희곡)
사회 주의 제도 사회	1960 년대	천리마 시대 문학	김일성 찬양	고병삼 - 맑은 아침(단편소설) 변희근 - 철의 력사(단편소설) 리종순 - 조국 산천에 안개 개인다(장막희곡) 백하 - 장군님의 어머니(서정서사시)
			사회주의 건설자, 천리마 기수들의 형상화	박세영 - 천리마 행진곡(가사) 정서춘 - 하늘의 별들이 다 아는 처녀(서정시) 김병훈 - 길동무들(단편소설) <하주-해성>에서 온 편지(단편소설) 권정웅 - 백일홍(단편소설), 력사의 채취 조백령 - 붉은 선동원(희곡) 리동춘 - 산울림(경희극) 한성 - 정방곡(영화문학)
			당의 혁명 전통	림춘수 - 정년전위(장편소설) 리종순 - 한 지대장의 이야기(영화문학)
			인민의 혁명투쟁	천세봉 - 대하는 흐른다(장편소설) 석윤기 - 전사들(중편소설) 시대의 탄생(장편소설)

시기구분		문학경향	작가(국가) - 작품
사 회 주 의 의 건 설	1970년 대 이후 ⁸²⁾	주체 문학의 대 전성기	김일성 찬양 『불멸의 력사』의 여러 소설들 강효순 - 배움의 천리길(장편소설) 리중순 - 조선의 별(영화문학)
			김정일 찬양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노래(가사) 조선의 행복(단편소설) 리종력 - 고요(소설) 향도의 해발을 우리러(시집)
			김일성 혁명 가계 찬양 리기영 - 력사의 새벽길(장편소설) 4·15 문예창작단 - 누리에 붙는 불(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장편소설) 백인준 - 친위전사(영화문학)
			인민들의 혁명투쟁 석윤기 -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장편소설) 박승수 - 유격대의 오형제(영화문학) 리종렬 - 돌과구(장편소설) 김규엽 - 새 봄(장편소설) 리춘구 - 이 세상 끝까지(영화문학) 당의 참된 딸(혁명가극) 한상운 - 초행길(영화문학) 리진우 - 월미도(영화문학) 엄단웅 - 자기 위치 앞으로(소설)
			사회주의 현실의 주제 최학수 - 평양시간(장편소설) 변희근 - 생명수(장편소설) 리춘구 - 열 네 번 째 겨울(영화문학)
			당에 대한 충성심, 조국사랑 김철 - 어머니(서정시) 김상오 - 나의 조국(서정시) 리정슬 -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가사)
			조국통일 안창만 - 조선은 하나다(가사) 백인준 - 금회와 은회의 운명(영화문학)
			력사주제 박태원 - 갑오농민전쟁(장편소설)

82) 70년대 이후의 작가들은 남한에서는 대부분 알려지지 않았지만 ‘평남관개시초’의 작가 리용악은 남한에서도 익히 알려진 작가이다. 남한 교과서에 실려있는 리용악의 작품과 함께 공부한다면 좋은 통일 대비 문학 교육이 될 것이다.

그리고 김일성 사후 김정일의 수령화나 주체화를 위해 1997년에 새로 발행된 『문학-고등중학교 5』 교과서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의 불멸의 친필활동’ 단원을 편성하여 강조하고 있는데, 그 작품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8>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의 불멸의 친필활동’ 단원 내용

작품 내용	작품명
김일성 찬양	축복의 노래, 우리의 수령, 우리 교설 한 초가 한 시간이 되어줄 수 없을까 충성의 노래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김정숙 어머니 찬양	나의 어머니, 진달래
혁명적 신념과 맹세	대동강의 해맞이, 조선아 너를 빛내리 고난의 행군길 이어가리라
조국사랑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	조선의 품, 공화국기발, 제일강산

위와 같은 북한 문학 교육의 내용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을 알 수 있다.⁸⁴⁾

첫째, 문학사 기술이 유물론적 사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사회의 경제적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따라 시대를 구분하고, 문학도 그에 기초하여 그 계급적, 구조적 모순을 변혁하고 사회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쪽으로 그 흐름을 잡고 있다.

83) 해방 후 한국 전쟁을 거치고 1970년대 이후까지에서 선정된 작품에서는 남한의 문학 교과서 작품과는 많은 차이점을 보인다. 남과 북이 함께 극복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박태원의 「갑오농민전쟁」은 ‘통일 대비 문학 교과서’의 목록에 선정했다.

84) 문선희, 앞의 글, 53면.

둘째, 주체적 문예 이론에 기초하여 문학사 서술에서 중요시하는 작품, 즉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작품을 선택하고, 이에 어긋나는 작품들은 배제하고 있다. 또한 주체적 문예 이론에서 강조하는 인민성, 노동 계급성, 당성의 원칙에 충실한 작품들을 선택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고대 중세 문학에서는 인민성과 계급성을 드러내는 문학으로 구비 문학과 ‘반침략 봉건 투쟁’을 내용으로 하는 문학 작품을 강조한다. 근대문학에서는 ‘계급 투쟁과 민족 해방’을 지향하는 작품을 강조하고, 현대 문학에서는 ‘당성, 즉 김일성을 찬양하고 사회주의 건설 사업을 지향하는 문학’을 강조한다.

셋째, 문학사에서 고구려와 발해 문학을 강조하고, 상대적으로 신라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 이는 북한에서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점은 남한의 중등학교 문학 교육에서 삼국 시대의 노래로 신라의 ‘향가’를 중요하게 다루고, 고구려와 백제의 문학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점과 대조적이다. 그리고 발해의 문학을 언급하고 있는 것도 남한의 중등학교 문학사 교육에서 발해가 전혀 언급되지 않는 점과 대조적이다.⁸⁵⁾

넷째, 고대 중세 문학 서술에서 구비 문학이 강조되고 있다. 구비 문학은 인민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인민의 문학으로 ‘반봉건, 반외세, 반침략주의’를 가장 강하게 드러내는 문학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근대 문학 서술에서 개화기 문학이 빠져 있다. 우리의 근대는 식민지와 함께 시작되어 정작 올바른 자본주의 사회는 겪지 못했다고 진술한다. 그러다가 일제시대 계급적, 민족적 해방운동이 일어나던 1920년대 후반기부터는 현대로 기술하고 있다. 그렇기에 근대 문학에 대한 서술이 없고

85) 남한의 고등학교 18종 『문학』교과서 중 2권이 발해 양태사의 한시 ‘야청도의성’을 수록하고 있으나 문학사 기술에서 발해의 문학사에 대한 언급은 없다.

개화기 문학의 흔적을 확인할 수도 없다. 북한은 1910년대 이후로 갑자기 1930년대 ‘진보적 문학’으로 건너뛰고 있다. 이는 남한에서 개화기 문학의 담당자이자 근대 문학의 기수로 다루어지는 이인직, 이광수, 최남선 등에 대한 견해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문학 기술을 교과서에서 배제한 것으로 여겨진다.⁸⁶⁾

여섯째, 문학 교육에서 문학사의 중요 작가를 작가론으로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평가와 대표작들이 주체적 문예 이론에 근거하여 다루어지다 보니 완전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일곱째, 현대 문학은 남한과 완전히 이질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북한 문학의 현대 문학 기점은 1926년이다. 1926년 김일성의 등장과 함께 항일혁명 문학이 탄생되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또한 북한에서 다루는 현대 문학 작품은 ‘당과 김일성 찬양,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김일성 사후 김정일의 친필활동이 문학 교과서에 실리고 있다. 또한 한국 전쟁을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명명하고 전쟁 문학을 강조하며, ‘반미 문학’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인민 투쟁과 혁명을 강조하는 문학’으로 일관하고 있다.

3. 남한과 북한의 문학 교육 비교

남한의 문학 교육 이론은 너무도 다양한데, 북한의 문학 이론은 주체적 문예 이론 한 가지가 문예 정책과 문학 교육의 지침으로 굳건하게 서 있다. 즉, 남한에서 문학을 비평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자유롭다고 할 수 있고 북한에서의 문학을 비평하는 기준은 ‘주체 문예 이론’ 뿐이라고 할 수 있

86) 이장휘, 앞의 글, 44면.

기에 “남 : 북 = 다양성 : 유일성”이라는 도식도 가능하다.⁸⁷⁾

하지만 남한과 북한이 지금까지 문학에서의 교류는 물론이고 교육에서의 교류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것을 알아보고 진지하게 연구해 볼 기회 자체가 없었다. 이런 점은 문학 교육 현실에서도 반영된다. 남한에서는 다양한 의미 찾기가 시도되고 더 유연한 작품 읽기가 이루어지지만 북한의 문학 교육은 주체적 문예 이론에 의해서 동일한 문학 교육의 내용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의 문학 이론과 문학 교육을 하나의 관점에서 비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것들만 고집하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도 느낄 수 있다.

한편,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 가운데 통일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다는 점은 동일하다. 조국 통일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다는 북한도 실질적인 교육의 측면에서는 김일성 부자와 공산당에 대한 찬양, 반봉건·반침략·애국투쟁, 그리고 남한과 미국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조국 통일’이라는 제목 아래 들어가 있는 작품은 가사 한 작품과 영화문학 한 작품 밖에 없다. 이런 모습은 남과 북의 통일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통일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하고 서로가 서로를 알려는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노력이 북한의 교육에서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남한도 마찬가지다. 단원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학의 즐거움’, ‘문학의 아름다움’, ‘감상하며 읽기’, ‘문학의 표현’ 등 주로 문학 활동의 기본 원리와 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 이해와 문학적 감수성과 상상력 계발, 그리고 문학의 가치와 전통의 이해를 통한 문학 활동에의 능동적 참여 태도를 기르는 것 등에 교육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북한과 북한 사람들의 삶과

87) 문선희, 앞의 글, 60면.

관련된 단위 목표나 단위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기껏해야 ‘문학과 현실’, ‘삶과 문학’ 단위의 교육 목표 설정에서 그것을 조금 볼 수는 있으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구체적으로 수록된 작품들도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수업을 진행하기에는 쉽지 않은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 때, 문학의 본질이 ‘삶의 표현’, ‘삶의 반응, 그 가운데서도 정서의 언어적 표출’에 있다⁸⁸⁾는 점에서 남과 북이 모두 문학 자체의 고유한 위상을 찾지 못하고, 문학을 다른 목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북한의 ‘종자’는 남한의 ‘주제’와 연관 지을 수 있고, 북한의 ‘서정적, 서사적, 극적, 서정서사적 묘사방식’의 분류는 남한의 ‘서정적, 서사적, 희곡적, 교술적 갈래’와 비슷하다. 또한 북한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학 작품의 구성과 구성 요소인 인물, 갈등, 이야기 줄거리, 감정 조직 등의 개념은 남한의 소설적 요소인 구성과 구성의 요소인 인물, 갈등, 줄거리, 배경, 사건 등과 큰 차이가 없다.

이러한 작은 공통점에서 통일을 대비한 문학 교육이 출발한다면 통일 문학 교육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것은 남과 북이 문학 자체의 고유한 영역을 회복하는 것이 문학 교육의 이질성 극복의 첫 걸음임을 보여준다.

88) 김대행, 『문학의 개념과 문학 교육론』, 『국어교과학의 지평』,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322-328면.

Ⅲ. 통일을 대비한 소설 교육 방안

1. 통일을 대비한 소설 교육 과정

현행 7차 교육 과정의 고등학교에는 ‘국어과 교육 과정’, ‘문학과 교육 과정’은 있어도 ‘소설과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따로 없다. 『국어』 과목 안에 소설 몇 편이 들어 있고 『문학』 과목 안에 소설 몇 편이 들어 있는 것이 전부다.

현행 7차 교육 과정의 고등학교 1학년이 배우는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는 소설들의 수록 단원명과 작품은 다음과 같다.

<표 9>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수록 소설

	단원 이름	소설 이름	작가
국어(상)	1. 읽기의 즐거움과 보람	그 여자네 집	박완서
	2. 짜임새 있는 말과 글	봄 봄	김유정
	5. 능동적인 의사 소통	구운몽	김만중
국어(상)	7. 생각하는 힘	장마	윤홍길
	8. 언어와 세계	삼대	염상섭
국어(하)	2. 정보의 조직과 활용	허생전	박지원
	4. 효과적인 표현	눈길	이청준
	7. 전통과 창조	춘향전	미상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들이 배우는 『문학』 교과서에 들어 있는 소설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 중에서도 장르별로 작품을 수록하고 있는 디딤돌 출판사⁸⁹⁾의 『문학(상)』 교과서에 실려 있는 소설들의 수록 단원명과 작품은 다음과 같다.

<표 10>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⁹⁰⁾ 수록 소설

	단원 이름	소설 이름	작가
문학(상)	I. 문학의 본질 1. 문학의 특성 (2) 문학과 삶	역마	김동리
	2. 문학의 기능과 가치 (2) 문학의 가치	금수회의록	안국선
	3. 문학의 갈래 (2) 문학의 갈래 구분	모래톱 이야기	김정한
	II. 문학의 수용과 창작 방법 1. 문학 작품의 수용 방법 (2) 작품 수용의 다양성	무정	이광수
	(3) 창조적 재구성과 내면화	돌다리	이태준
	2. 서사 문학의 수용과 창작 (1) 구성과 시점	동백꽃	김유정
		아라비안나이트	미상
	(2) 인물과 배경	학	황순원
		목걸이	모파상
	(3) 주제와 갈등	광장	최인훈
		이생규장전	김시습

89) 김윤식 외 4인, 『고등학교 문학(상),(하)』, (주)도서출판 디딤돌, 2003.

90) 김윤식 외, 위의 책.

이상에서 살펴보듯이, 『국어』 과목이나 『문학』 과목의 자료글로서 소설 작품들이 들어갈 뿐이지 소설만을 위한 교육 과정은 없다. 그리고 이 소설들을 통해서 가르쳐야 할 것들도 아주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어 소설 교육의 일관성이나 소설 교육을 통한 통일 대비 교육의 측면에서는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 통일을 대비한 소설 교육의 교육 과정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교육 과정’이란 학습자에게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하여 교육 경험의 질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교육의 기본 설계도⁹¹⁾이다. 따라서, 교육 과정은 의도된 학교 교육에서 ‘왜, 무엇을, 어떻게, 어느 수준과 범위로 가르치고 평가하느냐’를 문서로 계획한 교육 설계도이기 때문에, 단순한 교육 내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교육 목표, 내용, 방법이나 운영 방식, 평가를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⁹²⁾ 그리고 교육 과정은 수준에 따라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 시·도 수준의 교육 과정, 학교 수준의 교육 과정, 교사 수준의 교육 과정으로 나뉠 수 있다.

여기서는 고등학교 『문학』 교과를 교사 수준의 교육 과정으로 통일을 대비한 소설 교육 과정을 만들어 볼 것이다.

1) 교육 목표

소설 작품의 감상과 창작 활동을 통해 문학 능력을 길러, 자아를 실현하고 통일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바람직한 인간을 기른다

가. 소설의 기본 원리와 소설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이해한다.

나. 작품의 감상과 창작 활동을 함으로써 문학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기른다.

다. 소설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통일의 필요성을 체득하여 통일에

91) 교육인적자원부, 『학교 교육 과정 편성·운영의 실제』, 2001, 1면.

92) 교육인적자원부, 위의 책, 1면.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태도를 지닌다.

2) 교육 내용

가) 내용 체계

<표 11> 통일을 대비한 소설 교육 과정의 내용 체계

영역	내용
(1) 소설의 본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설의 특성 · 소설의 기능 · 소설의 가치
(2) 소설의 감상과 창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설의 감상과 감상 원리 · 소설의 창조적 재구성
(3) 소설의 가치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설의 가치 인식 · 소설을 통해 통일에 대비하는 태도 확립

나) 영역별 내용

내용 체계에 따른 구체적인 활동 요소는 다음과 같다.

<표 12> 통일을 대비한 소설 교육 과정의 활동 요소

영역	내용	활동 요소
소설의 본질	소설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설과 언어, 소설과 삶의 관계를 이해한다 · 소설이 인지적, 정의적, 심미적 복합 구조물임을 이해한다.
	소설의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설이 인식적, 미적, 윤리적 기능이 있음을 이해한다 · 소설이 개인적 삶의 고양과 공동체 통합의 기능이 있음을 이해한다

영역	내용	활동 요소
소설의 본질	소설의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설이 가치의 산물임을 이해한다 · 소설 활동이 언어적, 문화적 실천 활동임을 이해한다.
소설의 감상과 창작	소설의 감상과 감상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설은 작자와 문화적 배경 등에 따라 미적 구조가 다양함을 이해한다 · 내용, 형식, 표현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작품이 이루어짐을 이해한다. · 작품의 주제는 주제, 구조, 맥락의 상호 작용을 통해 구성됨을 이해한다.
	소설의 창조적 재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설을 수용자의 처지에서 비판적, 창조적으로 재구성한다 · 소설 활동의 결과를 내면화하여 자신의 삶으로 구체화한다.
소설의 가치화	소설의 가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식적, 미적, 윤리적 관점에서 소설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과 원리를 이해한다. · 주제와 맥락에 따라 작품의 가치를 평가한다.
	소설을 통해 통일에 대비하는 태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설을 읽고 감상하면서 통일에 대비하는 태도를 확립한다. · 통일 문학과 관련하여 한국 문학의 가치를 찾고 계승, 발전시키는 태도를 지닌다.

3) 통일 대비 소셜 교육을 위한 소셜 목록

교육 과정이 체계적이며 결과적으로 활자화된 것이 교과서이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학생용의 주된 교재’⁹³⁾이다. 즉, 학교의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 교사들이 학생들과 함께 수업 시간에 주로 사용하는 교육적 재료이다.

교과서를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연구 결과이다. 그렇기에 교과서는 모름지기 확고한 교육 목표의 설정 아래 타당성과 일관성이 있는 단원 설정과 효율적인 단원 구성, 학생 수준을 고려한 지문 선정 등으로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야 한다.

하지만 위의 말 속에는 ‘교과서’라는 것이 ‘주로 사용하는 교육적 재료’이기에 다른 자료로 대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책 이외의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이는 7차 교육 과정 중 『국어』 교과서의 사용법에 나와 있는 다음의 말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교과서는 수많은 학습 자료나 교재 중의 하나이다. 이 교과서에 선정된 제재 역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교육 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실현하는 데 비교적 적절하다고 평가된 자료이다. 따라서 교사는 교수 학습 목표에 비추어 보다 적절한 제재와 다양한 보충 자료를 찾아 활용할 수 있다⁹⁴⁾

그렇다면 좋은 교과서는 어떤 것일까?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다음의 설문 조사 결과가 그 단초를 준다.⁹⁵⁾

93)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1977.8.22. 대통령령 8660호).

94)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국어』, 2000, 5면.

95) 편집부, 『좋은 교과서란』, 『함께하는 국어 교육』 봄호, 전국국어교사모임, 2003, 32-33면.

좋은 교과서란 교육 과정의 목표와 내용과 동떨어져서는 안 되겠죠.

좋은 교과서란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교사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어야
겠죠. 머리로, 마음으로, 또 생활에서도.

좋은 교과서란 학년간 과목간 위로 옆으로 호흡이 맞아야겠죠.

좋은 교과서란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해주어야겠죠.

좋은 교과서란 다른 과목과도 매체와도 아우르고 엮어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좋은 교과서란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존중받을 수 있어야겠죠.

좋은 교과서란 누가 읽어도 유익하고 재미있어야겠죠.

좋은 교과서란 재구성이 쉬워야겠죠.

좋은 교과서란 개념, 편집, 표현상의 틀림이 없고 또 예뻐야겠죠.

좋은 교과서란 미래를 내다보고 민족의 통일을 지향하는 교과서여야겠죠.

이렇게 볼 때, 지금의 『문학』 교과서는 위에서 이야기한 ‘좋은 교과서’
와도 거리가 있으며, 문학 교육이라는 큰 틀 가운데 일부분인 ‘통일 교육’
의 부문에서도 많이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부족하나마
문학이라는 교과, 특히 소설이라는 장르를 통해 통일을 대비하는 교육을
목표로 삼았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수많은 학습 자료나 교재 중의 하나로서
‘통일 대비 소설 교과서’를 제안하고 여기에 수록될 수 있는 소설 목록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현재, 문학 교과서는 있어도 통일 교과서와 소설 교과서는 아직 어디에
도 없다. 더구나 여러 문학 교육 목표 중의 하나인 통일을 중점적으로 대
비하는 교과서, 즉 ‘통일 대비 문학 교과서’는 더구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감히 ‘통일 대비 소설 교과서’를 만든다는 것이 많은 신중을 요하
는 일이긴 하지만, 다른 좋은 학습 자료나 교재 중의 하나 정도는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통일 대비 소설 교과서’와 소설 목록을 제안해 본다.

<표 13> 통일 대비 소설 교과서의 단원 제목과 수록 작품⁹⁶⁾

단원 제목	수록 작품
I. 소설의 본질	
1. 소설의 특성	산제비(리종렬) 갑오농민전쟁(박태원)
(1) 소설과 언어	
(2) 소설과 삶	만무방(김유정) 낙동강(조명희) 쇠찌르레기(림종상)
(3) 소설의 구조	운수 좋은 날(현진건) 만세 전(염상섭)
2. 소설의 기능과 가치	닿아지는 살들(이호철)
(1) 소설의 기능	탈출기(최서해)
(2) 소설의 가치	그 여자네 집(박완서) 중횡만리(김학철)
II. 소설의 감상과 창작	
1. 소설의 감상과 감상 원리	허생전(박지원)
(1) 작품 감상의 능동성	태백산맥(조정래) 손님(이청준)
(2) 작품 감상의 다양성	임꺽정(홍명희) 광장(최인훈) 춘향전(작자 미상)
2. 소설의 창조적 재구성	
(1) 소설의 재구성	토끼전(작자 미상)
(2) 소설의 창작	달밤(이태준)
III. 소설의 가치화	
1. 소설의 가치 인식	어둠의 혼(김원일) 고향(이기영) 학(황순원)
2. 소설을 통해 통일을 대비하는 태도 확립	살아있는 무덤(김하기) 장마(윤홍길) 나뭇잎(송병준)

96) 이 작품들의 선정은 남과 북의 작가별, 시대별, 남녀 작가별, 남북 교과서에의 수록 여부, 평단의 높은 평가, 남북의 시대상황 반영, 남북 언어의 이질성 극복이 가능한 작품 등을 중심으로 했다.

위와 같이 ‘통일 대비 소설 교과서’에 실린 소설들은 주로 남한 『문학』 교과서와 북한 『국어문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들 중 교실 현장에서 학생들과 소설을 읽으며 남북이 공동체임을 확인하고 통일에 대해 이야기 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한 작품들이다.

수록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I. 소설의 본질 1. 소설의 특성

먼저, 리종렬의 「산제비」⁹⁷⁾와 박태원의 「갓오농민전쟁」은, 소설은 언어의 예술이라는 전제 아래 남과 북의 언어 통일을 염두에 두고 선택한 작품들이다. 남한은 국한문 혼용이고 북한은 한글 전용으로 되어있어 표현 매체가 상이한 만큼 문학적 형상화나 미학적 완성도에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⁹⁸⁾ 그래서 북한 작가인 리종렬의 소설과 남한 학생들에게도 익히 알려진 박태원의 소설에 쓰인 언어를 통해 남과 북의 언어 차이점을 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택했다.

「산제비」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한 서울대표 임수경의 방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북한 소설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실존 시인 ‘박세영’의 아내 ‘김숙화’ 할머니는 남한 출신 남편의 생전 염원이었던 통일의 가능성을 고대하면서 과거를 회상한다. 문우들과 모여 앉아 조국의 통일을 바라던 시인의 시세계를 언급하고, 월북과 시인들의 방문으로 즐거워하던 취흥의 순간을 떠올리면서 시인의 아내는 남편의 실제 시 작품 「산제비」의 상징이 곧 임수경이라고 생각한다. 임수경의 방북으로 조국 통일에의 염원이 더욱 강렬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작품은 실제 사건과 실제 인물을 소설화했다는 점에서 이채롭다.⁹⁹⁾ 또 이 작품에는 ‘건늬길(건너길), 유방

97) 리종렬, 「산제비」, 『쇠찌르레기』, 살림터, 1993.

98) 김영철, 「통일문학 방법론 서설」, 『우리말글』, 2000, 19면.

99) 송명희, 앞의 글, 17면.

고성기(확성기), 갑삭한(좁 가벼운 듯한), 잉크단지(잉크병), 설음(설움), 희부연(희뿌연)' 등 지금 남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많은 단어들 사용되고 있다. 통일과 관련한 주제 의식과 더불어 이런 단어들의 확인을 통해 남북 동질성 회복의 첫 걸음을 내디뎌 보기에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

『갑오농민전쟁』은 작가 박태원이 한국 전쟁 당시 북한으로 넘어간 이후 온갖 병마에 시달리는 가운데서도 집필한 장편 역사소설로서, 남한에서는 접하기 힘든 많은 우리말들이 사용되어 있어 남과 북이 함께 해야 할 언어 통일을 위해 더없이 좋은 자료이다.

요즘 북한 사람들의 삶과 30년대 우리 민족의 삶을 통해서 남과 북의 동질성 회복에 그 목표를 두고 선정한 소설들로는 김유정의 『만무방』과 조명희의 『낙동강』, 림종상의 『쇠찌르레기』¹⁰⁰⁾이다.

김유정의 『만무방』은 1930년대 강원도 산골 마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두 형제의 이야기로서, 식민지 농촌 사회에 가해지는 가혹한 상황으로 인해 자기가 농사지은 쌀을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모순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이 작품은 작가 특유의 해학성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 착취 체제에 내재하는 모순을 겨냥하고 있지만, 계급 투쟁적 해결의 경직성을 드러내지 않고, 결말 부분의 아이러니한 상황을 통해 현실의 피폐함을 선명하게 그리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과 함께 당시 식민지 시대 농촌의 피폐상과 그 원인, 그리고 해결책까지 이야기하며 남과 북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낙동강』의 작가 조명희는 월북 작가가 아니면서도 이 땅 프로 문학의 선구자라는 이유에서 그 동안 실종 상태에 놓여있던 문인의 한 사람이다. 1927년 5월에 쓰여진 이 작품은 이 땅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의 기초를 마련한 작품으로 크게 주목을 받았던 작품이다. 일제 강점하의 낙동강 하구 연

100) 림종상, 『쇠찌르레기』, 『쇠찌르레기』, 살림터, 1993.

안의 농촌을 배경으로 일제의 침탈과 착취로 인한 농촌의 궁핍화 현상과
유이민화 현상, 그리고 식민 통치의 모순과 불합리에 맞서서 투쟁하는 사
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¹⁰¹⁾. 이 작품을 통해 앞선 시대 우리 민족의 모습
을 살펴봄으로써 지금의 남과 북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쇠찌르레기』는 북한 작가 립종상의 작품으로, 월남한 조류학자 원병오
박사가 북녘의 가족에게 새를 통해 교신을 보낸 극적인 실화를 소재로 하
고 있어 더욱 흥미를 끄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작중 나레이터가 원홍길
박사의 손자인 창운이의 월남한 막내 삼촌 원병후 박사에게 보내는 편지를
소개하는 액자식 구성으로 짜여져 있으면서, 남과 북으로 흩어진 이산가족
의 아픔을 감동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이 소설이 들어 있는 북한 소설
집 『쇠찌르레기』는 1993년 남한의 출판사에서 출판되어 북한 소설을 대중
들에게 다가서게 한 첫 소설책으로 의의를 지닌다.

소설의 구조 이해를 통해 남과 북의 소설 교육 공통점 찾기를 모색한 작
품으로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과 염상섭의 『만세 전』을 선정했다.

『운수 좋은 날』은 희비(喜悲)를 적절히 교차시킨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단편소설의 한 전형으로 자리 잡았으며 작품 제목이 암시하는 행운과 사건
내용과의 상호 불일치 현상에서 전개되는 과정을 아이러니 기법으로 표현
하고 있다. 아내의 죽음에서 이 작품의 구조는 정점에 달하고, 소설적 전환
이 이루어지며, ‘운수 좋은 날’의 반어적 의미가 드러난다. 아내의 죽음은
끊임없는 암시에도 불구하고, 의외의 행운이 바로 비극적인 불행과 교차됨
으로써 삶의 비극적인 아이러니를 유발시키고 있다. 결국, 최고의 행운을
잡았다고 믿는 순간이 실은 가장 불행한 순간이라는 아이러니로 상황의 반
전을 이룬다. 이런 구조를 통하여 작가는 일제 강점기의 굴욕적 상황 속에

101) 김재홍, 「『낙동강』과 『짓밟힌 고려』의 한 고찰」, 『한국학 연구』, 1989, 6면.

서 우리 민족이 겪었던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만세 전』의 작가 염상섭은 분단 이후 북한에서 줄곧 ‘반동작가’로 규정되어 한 번도 북한의 문학사나 문학선집에 오른 적이 없었다. 그런데 1998년에 나온 『조선현대문학선집』 16권에 그의 『만세 전』이 실려 있어 과거와는 다른 면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작품은 다른 한 측면에서 1919년 이전의 사회 현실을 인텔리의 시점에서 형상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하여 긍정적인 의의를 갖는다”¹⁰²⁾라는 북한에서의 평가는 이 작품이 북한에서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이는 과거에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북한 문학계가 냉전적 인식에서 벗어나 문학 유산을 객관적으로 취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북한에서 새롭게 평가하기 시작하고 남한의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소설의 구조 분석¹⁰³⁾을 통해서 남과 북이 공통으로 가졌던 식민지 시대의 궁핍한 삶을 함께 이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I. 소설의 본질 2. 소설의 기능과 가치

소설의 쾌락적 기능과 교훈적 기능의 이해를 통해 남과 북의 소설 교육 공통점 찾기를 모색한 작품으로 선택한 소설은 이호철의 『닿아지는 살들』과 최서해의 『탈출기』이다.

『닿아지는 살들』은 20년 동안이나 돌아오지 않는 딸을 기다리는 이산가족의 초조한 상황을 그리고 있다. ‘뽕 당 뽕 당’하는 쇠붙이 두드리는 소리를 배경음으로 하여 분단의 비극이 한 가정에 가져다 준 정신적 고통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과 함께 분단의 아픔과 이산가족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것을 해소할 방안을 고민해 본다면 통일을 자

102) 김재용, 『남북 문학계의 교류와 문학유산의 확충 - 남북에서 함께 읽는 이기영과 염상섭』, 『실천문학』, 2000, 51면.

103) 일본 동경에 유학 중인 주인공이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귀국을 서두르는 데서 시작하여 아내가 끝내 죽게 되자 다시 서울을 떠나게 되기까지의 노정을 1인칭 서술 상황으로 제시한 여로 형식의 구조.

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탈출기」는 남한과 북한의 교과서 모두에 실려 있는 소설로서, 1920년대에 간도로 이주한 이주민들의 비참한 삶을 작가의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그린 빈궁(貧窮)문학의 대표작이다. 다른 사실주의 작품들이 빈궁한 삶 자체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데 반해, 이 작품은 그러한 빈궁에 항거하는 반항적 주제를 강력히 내세우고 있어 빈궁의 원인을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찾는 신경향과 문학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하지만 전형적인 신경향파의 특징인 살인, 방화 등에 의한 결말과는 다른 현실적이며 긍정적인, 발전적 작가 의식이 보여진다는 점에서 성공한 작품 중 하나라 인정받는다. 이 작품을 통해 우리가 통일을 위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소설의 가치를 학생들과 함께 느끼며 통일을 이야기하기 위해 선택한 소설은 박완서의 「그 여자네 집」과 김학철의 「중흥만리」이다.

「그 여자네 집」은 가슴 아픈 민족사가 남긴 사랑 이야기이다. 만득이와 곱단이의 아름답고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통해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수난과 광복 이후 국토의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그려 내고 있다. 순수한 사랑을 나누던 두 남녀가 강제 징병과 정신대 징발이라는 문제로 인해 헤어지는 애뜻하고도 비극적인 사랑이야기 속에 우리 민족이 겪은 비극적인 역사를 담아내어, 학생들에게 일제의 만행, 전쟁과 국토의 분단이라는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생각해보게 할 것이다.

「중흥만리」는 태항산 전투에서 다리에 총상을 입고 불구가 된 항일조선의용군의 마지막 분대장 김학철이 쓴 연변 조선족 소설이다. 연변 조선족 문학이 이념적으로 북한 문학과 가깝고 항일무장독립투쟁의 명맥이 공산주의 빨치산 운동으로 계승되면서 해방 후 남한의 한국 문학 범주에서 제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통일의 시대를 대비하는 통일 문학에서는

연변 조선족 문학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종횡만리」는 첫째, 해방 후 남한 사회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항일무장독립투쟁에 관한 기념비적인 작품이라는 점, 둘째, 질박하지만 구수하고 정감 넘치는 문체와 익살스런 서술 태도 속에 나타난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신뢰를 전쟁 문학 속에 구현해 내었다는 점, 셋째, 연변 조선족 문학으로서 김학철의 문학이 한국의 역사와 언어를 담아내고 내면화시키며 그것을 함께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변 조선족 문학이 훌륭히 한국 문학의 범주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다.¹⁰⁴⁾

II. 소설의 감상과 창작 1. 소설의 감상과 창작 원리

소설의 다양한 미적 구조와 주제를 감상하기 위한 작품으로서는 박지원의 「허생전」, 조정래의 「태백산맥」, 황석영의 「손님」, 홍명희의 「임격정」, 최인훈의 「광장」, 그리고 「춘향전」을 선택했다.

연암 박지원의 「허생전」은 이광수¹⁰⁵⁾, 채만식¹⁰⁶⁾, 오영진¹⁰⁷⁾, 이남희¹⁰⁸⁾, 최시한¹⁰⁹⁾ 등에 의해 다양한 모습으로 변용이 시도되었던 작품으로 북한의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있다. 처음엔 무기력한 선비로 등장하여 아내의 비난을 받지만, 곧 현실에 참여하여 자신의 능력을 사회적 행동으로 보여주는 적극적 인물이 되는 허생이나 경제적으로 성장한 신흥 세력의 대변자로 볼 수 있는 변씨, 그리고 허생과 이완과의 문답 등을 통해 다양한 주제를 이끌어 낼 수 있다.

104) 이병렬 엮음, 『글동산 국어 - 현대 소설 109선』, 문원각, 2000, 526면.

105) 1923년 동아일보에 연재한 이광수의 장편소설 「허생전」.

106) 1946년 11월 15일 협동문고 단행본을 통해 발표한 채만식의 단편소설 「허생전」. 박지원의 「허생전」과 이광수의 「허생전」 및 설화로 전해져 오는 이야기를 패러디 기법을 바탕으로 집필.

107) 박지원의 「허생전」과 채만식의 「허생전」을 바탕으로 쓰여진 오영진의 희곡 작품 「허생전」.

108) 박지원의 「허생전」을 패러디하여 쓴 패미니즘 소설인 이남희의 「허생의 처」.

109) 숙명여대 교수인 최시한의 소설 「허생전을 배우는 시간」.

「태백산맥」은 반공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한 때 불온 서적으로 취급당했던 소설로서, 우리 근대사의 큰 흐름을 본격적으로 다루었다는 점과 민족 분단의 배경을 좌우 정치 세력의 대립 및 관념적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설명하지 않고 우리 삶의 근원적인 한과 녀의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작품이다. 이 작품을 통해 민족의 분단과 상잔의 역사적 현실이 아직도 우리 삶의 내부에 깊게 드리워져 있음을 상기하고 그것을 해소시키는 방안을 함께 생각해본다면 통일을 대비하는 좋은 계기가 될 작품이다.

「손님」은 작가 황석영이 1989년 북한을 방문한 이후 그 체험을 10여 년 동안 발효시켜 내놓은 작품으로, 50여 년 전 황해도 신천에서 벌어졌던 ‘기독교’와 ‘맑스주의’의 양민 학살을 다루었다. 이 작품은 무엇보다도 ‘분단소설’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했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국 전쟁 이후 익숙해져 버린 분단 체제에 대한 ‘분석적 접근’을 뛰어넘어 감성의 진화를 환기시키고 있으며 견고한 ‘분단체제’ 속에서 ‘통일’에 대한 수사(修辭)적 몸짓만 허용해온 현실에 대한 모반의 기획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¹¹⁰⁾

「임격정」은 ‘우리말의 보고(寶庫)이자 대해(大海)’로 불릴 정도로 빼어난 우리말들과 더불어 사회의 정치적 혼란상을 폭넓게 묘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반과 천민에 이르는 광범위한 인물 설정, 조선 시대 풍속의 치밀한 재구성 등으로 역사 소설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 소설을 통해 상층 사회의 타락에 대한 개혁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당시의 민중 의식을 바탕으로 현재의 분단 상황을 극복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볼 것이다.

「광장」은 분단과 이데올로기를 문제시하는 것이 금기시되어 있던 1960년

110) 오창은, 「억압된 기억의 꿈」, 『인문학 연구』, 2002, 2면.

대 상황에서, 남북 분단이라는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인간의 근원적인 삶의 문제와 결부시켜 분단의 비극을 정면으로 다룬 소설이다. 이 작품을 통해 분단이라는 것이 한 인간, 나아가 우리 민족 전체에게 끼친 영향을 생각해 보며 그것을 현실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춘향전」은 구전 설화가 판소리 사설을 거쳐 소설로 정착된 이래 120여 종에 이르는 이본(異本)이 나오는 등 신소설, 창극, 현대 소설과 연극, 영화에까지 끊임없이 다양한 장르로 재창조될 만큼 인기있는 우리 민족의 고전이다. 이 소설은 춘향과 이몽룡의 연애담을 중심으로 여성의 정절, 신분적 제약을 벗어난 인간 해방, 인간 평등, 자유 연애, 유교적 도덕 관념, 사회 개혁 의지 등 다양한 주제 의식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주제 의식에 대한 토론과 학습을 통해 남한과 다른 북한 사람들의 의식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II. 소설의 감상과 창작 2. 소설의 창조적 재구성

「토끼전」은 남북의 교과서에 모두 실려있는 판소리계 소설로서 ‘별주부전, 토공전, 토별전, 토생전’ 등 다양하게 불리며 수많은 이본이 존재한다. 이런 이본들을 바탕으로 소설 뒷이야기 쓰기, 새로운 이야기 첨가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소설 창작의 기본적인 맛을 보게 한다.

「달밤」은 30년대 단편 소설의 최고 작가였던 월북 작가 이태준의 작품으로서 분위기 묘사와 인물 묘사를 통해 소설의 맛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 사라져버린 주인공 ‘황수건’의 뒷이야기를 「달밤」의 문체적 특징에 맞게 상상하여 씌으로써 소설 창작의 경험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II. 소설의 가치화 1. 소설의 가치 인식

소설의 가치를 인식하고 통일에 대비하는 태도를 확립하는 것은 가장 기

본적이고도 중요한 목표이다. 그러기에 위에서 언급한 소설들을 수업할 때 이런 점들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김원일의 「어둠의 혼」, 이기영의 「고향」, 황순원의 「학」, 김하기의 「살아있는 무덤」, 윤홍길의 「장마」, 송병준의 「나뭇잎」을 통해 종합적으로 통찰해 볼 것이다.

「어둠의 혼」은 분단 문제에 대한 관심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작품으로서 역사의 진실에 정면으로 접근한 분단 소설의 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작품은 좌익 운동을 하는 아버지를 둔 소년을 서술자로 설정하여 광복 직후 이데올로기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상황을 보여 준다. 작가는 이념적 혼란을 겪는 눈으로 빨갱이 아버지의 삶을 바라보는 소년을 통해 이데올로기에 집착하던 당대 지식인의 행동에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분단 상황에 살면서 통일을 대비해야 하는 우리들이 나아갈 바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고향」은 일제 강점기 때의 부조리한 농촌 현실과 그를 타개하기 위한 농민과 지식인의 투쟁을 그리면서 사실적인 사회 묘사,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인물형을 제시함으로써 당대 최고의 사실주의 소설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작가 이기영은 분단 이후 남한의 문학계에서 가장 기피되어 온 인물이다. 과거에 그가 카프 문학계 내에서 가장 중심적인 작가 중의 한 사람이었다는 점, 해방 이후 북한을 선택했다는 점, 그리고 북한에서 사망할 때까지 한 번도 정치적으로 문제된 적이 없고 줄곧 높이 평가받았고 북한 문학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되었다¹¹¹⁾는 점이 그 이유이다. 이런 작가의 소설과 더불어 앞에서 언급했던, 북한 문학계에서 새롭게 평가받는 염상섭의 소설 「만세 전」을 함께 배운다는 것은 냉전적 분단 구조를 뛰어넘어 통일로 나아가려는 의미있는 시도일 것이다.

「학」은 어릴 적에는 친한 친구였으나 한국 전쟁 때문에 서로의 의사나

111) 김재용, 앞의 글, 52면.

의지와는 상관없이 적어 되어야 했던 두 주인공의 이야기이다. 어쩔 수 없이 무너져야했던 순박함은 학으로 상징되는 어린 시절의 순수함으로 회복된다. 그것은 곧 통일에의 희망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다.

Ⅲ. 소설의 가치화 2. 소설을 통해 통일을 대비하는 태도 확립

「살아있는 무덤」은 간첩이라는 이름으로 한없는 증오의 대상이 되어오던 좌익 양심수들을 인간적으로 이해하려는 진지한 시도의 작품이다. 이 작품을 학생들과 함께 읽고 이야기함으로써 비전향장기수들이 인간으로서의 욕망을 가진 우리와 같은 인간일 뿐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신념에 따라 일생을 감옥에서 살기를 마다하지 않는 고귀한 품성을 가지고 있는, 분단체제의 희생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충격적이고도 감동적으로 이해하게 된다¹¹²⁾면 더할 나위없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장마」는 아들을 서로 남과 북, 서로 다른 편의 전장에 보내고 대립하게 되는 두 할머니를 통해 감동적인 화해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소설이다. 분단으로 인한 가족의 고통을 형상화하면서도 극복의 모습을 제시하기에 통일에 대한 믿음과 통일 후 우리 민족의 모습을 상상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작품이다.

「나뭇잎」은 북한 작가 송병준의 소설이다. 어느 날 수원지 관리소장 홍식이 막역한 친구인 시급양관리소 지배인인 장일구의 부탁으로 비 오는 날 수문을 열고 물고기를 잡게 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시 법무부에까지 올라가게 되고 시 법무부장인 방인성은 장일구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결국 수원지 관리소장을 해당 구역 주민들에게 하루 동안의 음료수를 공급하지 못한 엄중한 과오를 물어 2개월의 자격정지와 무보수 로동 처벌에 처했다. 장일구는 수문을 열지 않으려는 수원지 관리소장에게 자기가 부탁해서 억지로

112) 윤지관, 「어둠 속에서 떠오르는 불꽃」,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소설2』, 푸른나무, 1990, 405면.

수문을 열고 고기를 잡게 했기에 마음이 더욱 편치 않았다. 하지만 장일구는 방인성과 수원지 관리소장은 친구지간이고 이후 사돈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인성이 사심없이 법에 따른 일처리를 한 것을 알았다. 그래서 자기의 응졸함을 누우치고 인민을 위해 법을 철썩같이 지키는 두 사람에게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을 학생들과 함께 읽고 이야기함으로써 우리와는 다른 북한 사람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통일을 대비한 소설 교육 과정과 ‘통일 대비 소설 교과서’에 수록되어질 수 있는 소설들을 살펴 보았다.

교육 과정의 또 다른 내용인 ‘교육 방법’이나 ‘운영 방식’은 다음에 이어질 윤홍길의 소설 「장마」 수업 지도 방법으로 대체한다.

한편, 교육 과정의 또 한 영역인 ‘평가’ 부분은 이 논문에서는 살피지 않고 다음에 논하고자 한다.

2. 통일을 대비한 소설 수업 지도 방안

(윤홍길의 「장마」를 중심으로)

윤홍길의 「장마」를 바탕으로 수업 지도안을 마련하게 된 이유는, 현재 고등학교의 18종 『문학』 교과서¹¹³⁾ 중 7개 교과서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고, 이 소설이 한국 전쟁과 이데올로기의 차이로 인해 겪게 되는 한 가족의 아픔과 고통은 물론 그 극복까지도 감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충분히 학교 현장에서 민족 분단과 극복의 문제를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하여 통일 문제까지 다룰 수 있으리라는 판단에서이다.

윤홍길의 「장마」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7단원인 ‘생각하는 힘’에 수록되어 있는데, 소설 전문은 수록되어 있지 않고 일부분만 수록되어 있다.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활동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황을 파악하며 글을 읽기, 상황을 파악할 때의 유의점 알기, 독자가 동네 사람들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나(동만)’의 집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보기, ‘나’의 가족들에게 해 주어야 할 말 생각해 보기, 구렁이의 상징적 의미 찾아 보기, 외할머니가 구렁이에게 음식을 차려주는 이유를 상황 맥락과 관련하여 말해 보기, 주위 사람들의 입장에서 외할머니의 행동을 거드는 말을 해보기 등이다.

이와 같은 교과서에 제시된 활동 내용만으로는 줄거리와 갈등, 사건의 상황 파악은 되지만 민족 분단과 통일을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통일을 수업의 중심에 놓고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통일 대비 소설 수업 방법들을 구안해 보았다.

113) 현재 우리 나라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는 검인정 교과서로 총 18종류가 있다.

<표 14> 윤흥길의 「장마」 차시별 수업 지도 계획

차시	학습 목표	주요 학습 활동 내용	준비물
1차시	· 소설 전문을 읽고 줄거리를 쓸 수 있다. ¹¹⁴⁾	· 교사의 발문과 학생들의 말하기를 통한 줄거리 확인	소설 전문
2차시	· 북한말을 우리말로 바꿀 수 있다.	· 한겨레신문의 연재소설 중 북한말의 일부를 우리말로 바꾼다.	학습지1
3차시	· 인물간의 갈등 구조와 사회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	· 학습지2와 교사의 발문을 통해 할머니와 외할머니를 중심으로 한 갈등 구조를 파악한다. · 마인드맵 활동을 통해 소설의 사회적 배경을 파악한다.	학습지2 학습지3
4차시	· 바람직한 남북 화해의 방법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 소설에 제시된 샤머니즘적 갈등 해결 방안의 적절성을 알아보고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한다.	토론 수업 준비
5차시	· 남북청소년공동선언문 쓰기 ¹¹⁵⁾ 를 통해서 통일에 대비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 6·15 남북공동선언문을 참고하여 남북청소년공동선언을 쓰기를 통해 민족의 동질성 확보 가능성을 모색함	학습지4

114) 안석재, 「문학 교실에서 문학 작품을 비평적으로 읽기」, 『함께하는 국어 교육』통권72, 2006, 20면.

“소설 수업에서 작품의 전체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적인 활동은 줄거리 쓰기이다. 이것은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고 사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설에 대한 안목과 언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학생들은 작품을 읽고 줄거리를 쓰는 과정에서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면서 작품의 총체적 의미를 파악하고 사건과 인물의 표면을 통해 심층적 의미에 닿게 된다”.

<1차시>

- 학습 목표 : 소설 전문을 읽고 줄거리를 쓸 수 있다.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및 자료
	교사 활동	학생 활동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목표 제시 · 흥미 유발¹¹⁶⁾ ▶ 한국 전쟁을 겪은 가족의 아픔을 담은 소설 「장마」의 전문을 읽어 보자. 		전문이 담긴 프린트물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문을 통해 학생들의 줄거리를 파악할 때 꼭 알아야 할 부분을 상기시킨다. ▶ 지금 시간적 배경이 언제인가? ▶ 할머니의 아들, 곧 삼촌은 어느 군대에 나갔나? ▶ 외할머니의 아들, 곧 외삼촌은 어느 군대에 나갔나? ▶ 아들이 죽은 외할머니의 심정은 어떨까? ▶ 이런 외할머니를 대하는 할머니의 심정은 또 어떨까? ▶ 이 두 사람을 화해시키는 계기는 무엇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이 담긴 프린트물을 받고 소설을 읽는다.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을 모두 읽고 확인하고 줄거리를 정리한다. 		

115) 충북국어교사모임, 『소설, 시대를 읽다 2』, 도서출판 나라말, 2004, 296면.

116) 안석재, 앞의 글, 20면.

“사건과 사건간의 인과 관계를 파악하여 줄거리를 쓰면서 전체 내용을 잡아 나가되, 그 과정에서 할머니와 외할머니, 그리고 ‘나’의 내면을 잘 관찰하여 그 모습까지를 줄거리 쓰기에 반영해 보라”.

<2차시>

- 학습 목표 : 북한말을 우리말로 바꿀 수 있다.
- 학습 활동 : 한겨레신문에 연재 중인 소설 「바리데기」(황석영)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읽고 우리말로 바꾸어 보게 한다.

학습지1

이거이 남선에서 온 쪼코빵이다

→()

그날부터 소룡 아저씨는 본명을 잃어버리고 세관의 사무원 병사들이나 우리 아이들 사이에서도 모두 미꾸리로 통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화물을 싣고 내리며 눈알을 부라리고 체통을 지켜야 하는 장소에서도 얼굴만 마주치면 키드득, 하고 먼저 웃음이 터졌다.

사택 뒤편의 창고에다 짐을 부리는 동안 여느 때처럼 미꾸리 아저씨는 우리 집에도 따로 선물을 잔뜩 들여놓았다. 밀가루 포대에 입쌀에 우리들 주전부리로 월병 빵이랑 사탕에 쪼코빵까지 가져왔다. 엄마가 황태를 찢어서 소주잔과 함께 들여왔다. 그는 아버지와 소주 잔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쪼코빵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너이 이거 얼마나 맛있는 줄 아니? 이거이 남선에서 온 거다. 할마이도 잡썬 보라우요.”→()

할머니가 비닐 껍데기를 벗기고 가운데 하얗고 쫀득한 속이 들어있는 시커먼 과자를 들고 한입 베어 물고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거이 머 어디서 온 거라구?” → ()

“남선이오. 너이덜 맛있지 영.” → ()

우리는 대답할 틈이 없었다. 뭔가 허끝에서 뱃속까지 찌르르하는 기가 막힌 느낌이 퍼져가는 것 같았다. 미이 언니는 이제 고중 졸업반이라 처녀 티가 나서 앞으로 나서지는 못하고 우리가 다 받아먹고 정이나 숙이가 챙겨 주어야 못 이기는 체 받고는 했는데 미꾸리 아저씨는 그런 눈치도 알고 있어서 뒷주머니에서 짜잔, 하면서 특별 선물을 꺼냈다.

“이봐라, 머리핀이다. 나가 우리 사무실 김양한테 골라 달라 했지비. 너 이자 보니 명년 봄이 오기 전에 시집 보내야 되겠다.”

→ ()

우리는 미꾸리 아저씨가 나타나기 전에는 몇 날 몇 주가 지나도 강냉이 밥 외에는 얻어 걸리는 것이 없었다. 학교에 가서 보면 점심을 못 싸오는 아이들이 태반이었고 무산 광산에서도 배급을 두어 달씩 건너뛰기 시작하던 때였다. 강 건너서 양곡 화물차가 들어오면 그대로 청진으로 실려 나가곤 했다. 산골 벽지 마을은 이제 사람이 살지 않는 데가 많다고도 했다. 그래도 무산은 어쨌든 외래 물건이 거쳐서 나가는 길목이라 끼니를 거르지언정 어떻게든 먹고는 살았다. 미꾸리 아저씨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더니 아버지에게 던지시 말을 꺼냈다.

“이젠 공화국두 형편이 좀 피겠수다.”

→ ()

“기췌 몇년간 농사두 다 망쳐먹구, 기후가 바뀌서 큰일이라. 아 기췌 양강도선 고원 지대에서 남새두 못제 먹었는데 요사인 부루가 다 난다구 합테.”

→ ()

“사람이 싸먹을 밥두 없이 부루만 먹구 어찌 살겠습둥? 감재가 익어야지. 해마다 장맛비가 바계쓰로 붓듯이 하니 강냉이고 감재고 다 망쳐 놓지 애인기요.”

→ ()

“거 흠갈이 전투 하자구 해놓구 누구하나 성의를 내어 나서는 놈이 없으니. 지력이 떨어제서 소출이 안 나와.”

→ ()

“제미 주체농법 갖구 어디 뵈네까? 비료를 무데기루 몇 해를 쳐쌓아 줘야 땅이 살아날까 말까 하는데. 시자 밖에선 회사들마다 경기가 좋아진다고 모두 기대하구 있습네다.”

→ ()

- 황석영 연재소설 「바리데기」 2장 16회, 한겨레신문(2007. 1. 23)

<3차시>

- 학습 목표 : 인물간의 갈등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및 자료
	교사 활동	학생 활동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 학습 확인 · 학습 목표 제시 · 흥미 유발 ▶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갈등 구조를 알아보자.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문을 통해 학생들의 활동을 돕는다. ▶ 소설의 갈등은 인물 사이의 외적 갈등과 인물의 내적 갈등, 그리고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이 있는데, 이 작품에서는 어떤 갈등이 주된 갈등일까? ▶ 이런 갈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 결국 이 갈등은 어떻게 해결되나? · 마인드맵 활동을 통해 소설의 사회적 배경을 파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은 모둠별로 학습지를 정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지 2 · 학습지 3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의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화해를 두 할머니를 통해 그렸음을 확인한다. ▶ 화해의 방법에 대해 다음 시간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 		

학습지2

장마

윤홍길

1. 가장 심하게 대립을 보이고 있는 사람은 누구와 누구인가?
2. 그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3. 그 두 사람의 공통점도 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인가?
4.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어떻게 보면 시대, 즉 현실의 피해자들이다. 어떤 현실인가?
5. 어느 날 나타난 구렁이는 무엇을 상징할까?
6. 그런데 이 구렁이는 꼬리가 잘려 있었다. 특별한 의도가 있었을까? 있다면 작가의 의도는 무엇이였을까?
7. 이런 외할머니의 태도에서 결국 작가가 이야기하려고 한 것은 무엇일까?
8. 마지막 장면에서 두 할머니가 손을 잡는다. 이는 무엇을 상징할까?

학습지3

장마

윤홍길



<4차시>

- 학습 목표 : 바람직한 남북 화해의 방법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및 자료
	교사 활동	학생 활동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 학습 확인 · 학습 목표 제시 · 흥미 유발 <p>▶ 결국 작가는 인물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을 하기는 하는데, 그 방법이 적절한가?</p>		
전개	<p>▶ 이 소설의 갈등은 지난 시간에 확인한 대로 시대의 갈등, 곧 남과 북의 이데올로기 갈등이다. 이 갈등을 작가는 ‘구렁이’라는 샤머니즘적 존재를 통해 해결하고 있는데, 이런 해결 방법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지 토론해 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진지한 토론을 유도한다. <p>▶ 자신이 할머니 또는 외할머니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서 토론해 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화해의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의 방법에 대해 익히고, 준비해 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국 남북의 화해는 남북 모두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함을 주지한다. 		

<5차시>

- 학습 목표 : 남북 청소년공동선언문 쓰기를 통해서 통일에 대비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학습지4-1

6·15 남북 공동선언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13일부터 6월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학습지4-2

남북 청소년공동선언

남북의 청소년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2.

3.

4.

5.



년 월 일

남쪽 청소년 대표 ○○○

북쪽 청소년 대표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금 우리 나라의 문학 교육 현실에서 통일을 대비한 문학 교육, 특히 통일을 대비한 소설 교육이 없다는 데에서 출발했다. 『문학』 교과는 물론이고 『국어』 교과의 교육 과정 어디에도 통일을 대비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더구나 교실 수업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는 소설 작품을 찾기는 매우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통일관과 북한관을 키우는 통일 교육은 어쩌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내용을 통해 통일을 대비한 소설 교육 방안을 마련해 보았다.

첫째, 남한과 북한의 교과서에 실려 있는 문학 이론과 소설 작품들의 분석을 통해 남북의 문학 교육 차이점과 공통점들을 알아보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북한의 문학 교육과 남한의 문학 교육은 문학 이론에서부터 내용에까지 많은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북한의 ‘종자’ 개념과 남한의 ‘주제’ 개념, 북한의 문학 작품 분류와 남한의 문학 작품 분류,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실려 있는 작품들, 그리고 문학의 구성과 구성요소에 있어서는 동질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여기서 소설을 통한 통일 교육의 단초를 발견했다.

둘째, 남한의 교육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통일을 대비한 소설 교육 과정을 만들고 이어 ‘통일 대비 소설 교과서’에 들어갈 수 있는 소설 목록을 구성해 보았다.

7차 교육 과정 중 『문학』 교과의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통일을

대비한 소설 교육 과정은 소설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창작과 감상을 통해 학생들과 함께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으로 꾸렸지만, 교육 목표에서부터 체계와 내용 요소까지 모든 부분을 통일을 대비한 것에 집중했다.

이것을 바탕으로 ‘통일 대비 소설 교과서’에 들어갈 수 있는 소설 목록을 만들었다. 이 교과서에 실릴 수 있는 작품들은 「산제비」(리종렬), 「갑오농민전쟁」(박태원), 「만무방」(김유정), 「낙동강」(조명희), 「운수 좋은 날」(현진건), 「만세 전」(염상섭), 「닿아지는 살들」(이호철), 「탈출기」(최서해), 「그 여자네 집」(박완서), 「종횡만리」(김학철), 「허생전」(박지원), 「태백산맥」(조정래), 「손님」(황석영), 「임꺽정」(홍명희), 「광장」(최인훈), 「춘향전」(작자미상), 「토끼전」(작자미상), 「달밤」(이태준), 「어둠의 혼」(김원일), 「고향」(이기영), 「학」(황순원), 「살아있는 무덤」(김하기), 「장마」(윤홍길), 「나뭇잎」(송병준) 등이다. 이 작품들 가운데는 남북의 교과서에 같이 실려 있으면서 남북한 학생들이 함께 배우는 작품도 있으며 북한 작가의 북한 소설, 한국 전쟁과 이산 가족의 문제 등을 다룬 남한 소설도 있다. 이 작품들 모두는 남한과 북한 동포들의 삶을 이해하고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며 통일을 이야기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선정했다.

셋째, 윤홍길의 소설 「장마」를 바탕으로 고등학생들과 수업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통일을 대비한 실제적인 수업 모형을 만들어 보았다. 북한의 교육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소설 전문을 읽고¹¹⁷⁾ 난 다음 교사의 발문과 학습지를 통해 줄거리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언어와 많이 다른 북한 언어를 우리말로 바꾸어보는 활동을 통해 언어의 동질성 회복 가능성을 살펴보고 인물과 갈등, 사회적 배경

117) 북한 교육위원회 보통교육부, 『교수요강-국어문학 : 고등중학교(4-6학년용)』, 1984.

“교재가 주로 작품 발취로 되어 있는 조건에서 가능한 모든 조건을 리용하여 학생들이 작품 원문을 읽도록 하여야 한다”.

파악을 통해 북한 사람들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마인드맵 활동을 통해 분단 이전 남북이 함께 했던 시대적·사회적 배경을 파악하기도 하고 바람직한 남북 화해와 분단 해결의 방법에 대한 토론 수업, 6·15 남북 공동 선언문을 참고하여 남북 청소년공동선언문 쓰기 활동을 통해 민족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통일의 시대에 대비해 우리 나라의 소설 교육, 나아가 문학 교육에 대해서 다음의 몇 가지를 제언해 본다.

먼저, ‘문학 작품의 감상과 창작 활동을 통해 문학 능력을 길러, 자아를 실현하고 통일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바람직한 인간을 기른다’는 통일을 대비한 문학 교육의 목표를 명확히 세워야 한다. 그리고 이런 교육 목표는 교육 과정상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목표가 명확하게 관철될 때 비로소 학생들은 북한 사람들의 삶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남과 북은 한민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체득하여 통일에 명확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통일을 대비한 새로운 교과서가 만들어져야 한다. 지금의 문학 교과서나 국어 교과서로는 통일을 대비한 교육을 하기가 힘들다. 사고의 전환을 이루어 전적으로 통일을 대비한 교과서가 만들어진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통일 대비 교육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 이제 거의 모든 교과서가 검인정으로 된다고 할 때, 통일 대비 교과서 제작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 새로운 교과서는 어느 한 부분의 편향적인 내용만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문학의 본질과 기능에 충실하면서 다양한 북한 소설과 남한 소설이 함께 수록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 문학 작품에 대한 개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소설 작품은 사람들의 삶을 보여준다고 할 때, 북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서 소설만큼 좋은 자료는 없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나라 국민들에게 북한 소설은 접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해방 후 오랫동안 ‘월북 작가’라는 이름의 작가들을 우리들 곁에서 접할 수 없었다는 것은 이를 증명한다. 아울러 북한 문학뿐만이 아니라 연변 조선족의 문학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넷째, 통일을 대비하는 분위기가 전 사회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문학은 결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사회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통일 문학이 정치 체제의 완전한 통일에서 가능¹¹⁸⁾할 수 있듯이 통일 대비 문학도 통일을 대비하고 있는 사회·정치 체제 아래에서만 온전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성과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먼저, 이 연구는 실제적인 북한의 문학 교육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북한 소설 작품과 자료를 충분히 접하지 못했다. 읽을 수 있는 북한의 소설 작품도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의 고등학교 교실에서 소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는 알아볼 길이 없었다. 북한의 학교 현장의 모습을 통해 가르치고 있는 방법과 내용을 안다면 더욱 실천적인 연구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는 통일을 대비한 소설 교육 과정의 내용 중 ‘평가’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교육 과정의 마무리는 ‘평가’ 부분이라고 할 때 좀 더 시간을 두고 자세한 연구 후에 ‘평가’ 부분이 완성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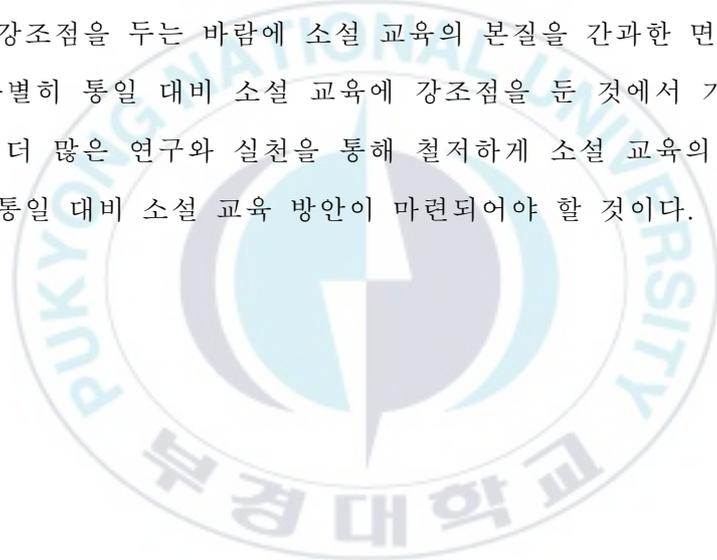
또한, 통일을 대비한 소설 교육을 위한 소설 작품 목록의 선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소설의 본질적 측면은 물론이고 통일과

118) 김영철, 앞의 글, 17면.

관련하여 더 높은 문학적 평가를 받는 남북의 소설 작품들을 넓고 깊게 찾아본다면 통일 대비 소설 교육에 더 적합한 소설 작품의 목록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고등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수업을 해 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좀 더 많은 시간을 두고 다양한 작품과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해 본다면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통일을 대비한 소설 교육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소설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에 대한 것 보다는 통일 교육에 강조점을 두는 바람에 소설 교육의 본질을 간과한 면이 없지 않다. 이는 특별히 통일 대비 소설 교육에 강조점을 둔 것에서 기인한 것인데,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실천을 통해 철저하게 소설 교육의 본질을 바탕으로 한 통일 대비 소설 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 단행본 >

- 교육인적자원부, 『학교 교육 과정 편성 운영의 실제』, 교육부, 2001.
-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1988.
- 김동규, 『북한의 교육학』, 문맥사, 1990.
- 김윤식 외, 『고등학교 문학』, 도서출판 디딤돌, 2003.
- 김윤식 외, 『고등학교 문학 교사용 지도서』, 도서출판 디딤돌, 2003.
- 김재용, 『북한 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지성사, 1994.
- 림종상 외, 『쇠찌르레기』, 살림터, 1003.
- 맹용재 외, 디딤돌 문학 소설, 도서출판 디딤돌, 2006.
- 박태상, 『북한 문학의 사적 탐구』, 깊은샘, 2006.
- 박태상, 『북한 문학의 현상』, 깊은샘, 1999.
- 신형기, 『북한 소설의 이해』, 실천문학사, 1996.
- 안인희, 『교육 고전의 이해』, 이화여대출판부, 1975.
- 이동순 외, 『어디서나 보이는 집』, 도서출판 선, 1995.
- 이병렬 엮음, 『현대 소설 109선』, (주)문원각, 2000.
-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지침서』, 양동문화사, 2004.
-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교육 교수법과 그 실제』, 오성사, 2001.
- 최시한, 『소설의 해석과 교육』, 문학과 지성사, 2005.
- 충북국어교사모임, 『소설 시대를 읽다2』, 도서출판 나라말, 2004.
- 한국교육개발원, 『학교 통일교육 자료 개발 연구』, 방문사, 1996.

< 논문 >

- 고용우, 소설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함께하는 국어 교육』 여름호, 2004.
- 고용우, 고등 『국어』 교과서로 수업을 해보니, 『함께하는 국어 교육』 봄호, 2003.
- 권정은, 통일교육의 현황과 발전방향 연구 - 제7차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교육대학원, 2003.
- 김송일, 통일에 대비한 교육, 『교육이론과 실천』, 1992.
- 김영철, 통일문학 방법론 서설, 『우리말글』, 2000.
- 김우중, 북한 문학의 실태와 우리 문학의 통일 지향, 『교수아카데미총서』, 1994.
- 김재용, 남북 문학계의 교류와 문학유산의 확충, 『실천문학』, 2000.
- 문선희, 북한의 고등중학교 문학교육 - 남한과의 비교 및 지향점 모색,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1999.
- 박상미,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말하기 듣기 교육 내용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교육대학원, 2006.
- 백병부, 국어 시간에 하는 분단과 통일 이야기, 『함께하는 국어 교육』 여름호, 2003.
- 복한호, 남북한 교과서 이질성 비교 -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교육대학원, 2006.
- 송명희, 북한의 문학과 주체문예이론2 - 1980년대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호, 1999.
- 송희복, 변화하는 시대의 북한 문학, 어떻게 볼 것인가 - ‘한살림’의 대동(大同)문학을 위하여, 『진주교육대학교논문집』, 2000.

- 심영택, 통일 대비 국어 교육 연구, 『청주교육대학교논문집』, 2000.
- 안석재, 문학 교실에서 문학 작품을 비평적으로 읽기, 『함께하는 국어 교육』 통권 72호, 2006.
- 안석재, ‘문학의 즐거움’에 대한 학생들의 저항에 맞서기, 『함께하는 국어 교육』 통권 68호, 2006.
- 연용순, 1990년도 북한 단편소설 연구 - 『조선문학』을 중심으로, 『순천향어문논집』, 1998.
- 윤지관, 어둠 속에서 떠오르는 불꽃,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소설2』, 1990.
- 이동백, 남북한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동화 비교 연구, 강남대학교교육대학원, 2002.
- 이장휘, 북한의 문학 교육 연구 - 고등중학교 「국어문학」과 연암 작품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교육대학원, 2002.
- 이정숙,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국어 교육 방안 연구, 서울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 2003.
- 장덕삼, 통일에 대비한 한국 교육의 방향, 『교육연구』, 2000.
- 채지영, 남북한 현대 소설 교육의 비교 및 전망, 이화여자대학교교육대학원, 1998.
- 한상수, 북한문학 연구의 비판적 검토와 전망 - 남북한 현대시문학사의 통합 서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교육대학원, 2004.
- 한정선, 통일에 대비한 국어과 내용 선정 방안 연구 - 통일 전 남한의 국어교육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교육대학원, 2004.

※ 참고 자료 1

< 설 문 지 >

이 설문 조사는 북한 문학, 특히 북한 소설에 대한 학생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조성배

1.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북한 문학 작품을 읽은 적이 있나요?
2. 읽은 적이 있다면 어떤 작품이었나요? (작품 제목이 생각나면 써 주세요. 제목이 생각 안 나면 떠오르는 내용이라도 적어 보세요)
3. '북한 소설'이라고 하면 어떤 주인공이 나올 것 같습니까?
4. '북한 소설'이라고 하면 어떤 사건들이 주로 나올 것 같습니까?
5. '북한 소설'이라고 하면 어떤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6. '북한 소설'이라고 하면 어떤 주제를 표현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7. '북한 소설'과 우리 나라 소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8. 통일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감사합니다. --